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경험 및 요구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조 민 지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경험 및 요구

배 지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조 민 지

인 준 서

조민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유아교사들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 양성평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3.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유아교사의 요구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2018년 6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10명의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경험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 1인당 2~3회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총 24회의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 면담 자료 전사본과 현장노트에 기록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제별, 핵심내용을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실제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의 계획에 따라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은 정해진 교육과정 속의 틈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양성평등교육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유아들이 쉽게 접하는 동요나 동화 속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소재를 찾아서 유아들과 함께 수정해보는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양성평등교육 내용이 담긴 교수자료를 사용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은 유아들이 교사의 사소한 언행과 행동까지도 모두 따라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교사 자신을 유아들의 ‘거울’이라고 비유하였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교사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지 않은 언행 및 모습을 따라할 수 있도록 ‘시범보기’를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들에게 나타나는 성 역할 고정관념 상황에 개입하여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난 언행 및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사전에 의도적으로 놀이 방향을 정해주는 등의 방법을 실행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유아들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들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 양성평등 개념에 대해 바로 잡아주며, 무조건 ‘같음’보다는 유아 개인의 특성을 ‘인정’해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둘째,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모든 교사들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교사만 실시하고 있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수 자료 및 교구가 부족하거나 이미 양성평등교육 목적으로 개발된 자료들도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기에 내용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자신

들이 지니고 있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교사가 유아의 행동과 사고에 개입할 때 교사의 교육방법에 대해 부정하거나 유아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태도가 잘못됨을 느끼지 못하는 주 양육자의 보수적인 성 역할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이외에도 교사들은 유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나 암묵적으로 정해진 사회적 약속 등과 같은 사회 환경 속에 내재된 성 고정관념 및 성 차별적인 요소들로 인해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유아교사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자기반성과 자기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교사들은 잘못된 양성평등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반성하고 유아들이 없는 곳에서도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거나 끊임없이 연구하는 태도를 가지며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때 한계를 느끼거나 교육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며 이에 따라 교사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사교육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지름길이라고 표현하며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주 양육자들에게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며, 부모교육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지름길이라고 표현하며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부모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 및 보급되기

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흥미롭고 실용적인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원외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 내에서만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양성평등 내용을 다룬 극 무대나 성 편견이 없는 직업 탐구 및 체험, 전시회, 체험관과 같은 다양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양성평등교육의 효과의 증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이러한 원외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외부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실재를 알아보고, 유아교사들이 실행하고 있는 유아 양성평등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요구를 들어봄으로써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실행방법과 보다 효과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연구자	7
II. 이론적 배경	9
1. 유아기의 성 역할 발달	9
1) 유아기의 성 역할 발달이론	9
2) 유아 성 역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2. 유아기의 양성평등교육	16
1)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16
2)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내용 및 방법	19
3)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22
3. 선행연구	24
III. 연구방법	27
1. 연구 참여자	27
2. 연구 절차	32
1) 예비연구	32
2) 본 연구	33

3. 자료 분석	35
IV. 결과 및 해석	37
1.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실제	37
1) 교사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양성평등교육	37
(1) 정해진 교육과정 속 틈 활용하기	38
(2)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소재 찾아 수정하기	40
(3) 양성평등교육 내용이 담긴 교수자료 사용하기	43
2)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성평등교육	48
(1) 교사는 유아의 ‘거울’ : 시범 보이기를 통한 양성평등교육	49
(2) 성 역할 고정관념 상황에서 개입하기	51
(3) 무조건 ‘같음’ 보다는 유아 개인의 특성 ‘인정’ 해주기	56
2.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유아교사들의 어려움	57
1) ‘모두’가 아닌 ‘나’만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	58
2)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수 자료 및 교구의 부족	59
3) 교사의 성 고정관념	62
4) 주 양육자의 보수적인 성 역할 인식	64
5) 사회 환경 속에서 내재된 성 고정관념 및 성 차별에 노출된 사회 환경	67
3.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유아교사들의 요구	69
1)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자기반성과 자기계발	70
(1) 교사의 자기반성 및 의식적인 노력	70
(2) 지속적인 자기계발	71
2) 양성평등교육 개념 확립을 위한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	73
(1)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바른길, 교사교육	73

(2)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지름길, 부모교육	75
3) 유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8
(1) 흥미롭고 실용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78
(2) 원외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80
V. 논의 및 결론	83
1.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실제	83
2.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유아교사들의 어려움	88
3.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유아교사들의 요구	92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8
<표 2> 반구조적 면담	3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지식 기반사회로 변화되면서 남성 노동 중심, 남성 우월중심과 같은 전통사회 의식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성 역할에 대한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김진, 2019). 최근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만 15세 전체 여성 인구를 대상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조사한 결과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2009년에는 49.3%(10,153명)이었지만 이후 약 9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을 기준으로 52.9%(11,893)로 보고되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이 측정한 2018년 우리나라 성 불평등 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의 여성 권한 영역에서 드러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 비율이 2012년 79.4%로 드러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89.8%으로 보고되었다(여성가족부, 2018).

21세기 현대인들에게는 전통사회 때부터 이어져 왔던 성 차별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고 있다(김희연, 김명희, 201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남녀가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양성평등기본법, 2016). 즉,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와 능력 및 경제활동 등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은 법 앞에서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에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생동안 학습할 권리를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는 모든 국민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지정하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양성에 대한 불평등이 논의되고 있고, 각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도 지속되어 오고 있다(김윤아, 2017). 인간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로 구분이 이루어지고 사회 안에서 성장하며 각각의 성에 따라 기대되는 여러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며 생활해 나간다(김정희, 2005). 여성 또는 남성으로 태어나 가정에서부터 자신이 타고난 성에 맞는 행동이나 태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되고 교육받으며, 사회 또한 특정한 성 역할을 부여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우민정, 1995).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인 3세 이후에 이미 성에 대한 선입견을 나타내며, 4~5세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적절한 성 역할 뿐만 아니라 내면화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지니게 된다(Derman-Sparks, 1989; 김완신, 2002에서 재인용).

유아기에 형성된 성 역할 고정관념은 성장한 후에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역할 구분이나 기대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바라는 대로 자아를 성취하고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각자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류덕순, 2007)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양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생활습관교육과 인성교육과 같은 사회교육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유아기 때부터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유아기는 사회가 요구하는 성 역할을 습득하고 성 역할 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구은옥, 2009). 이 시기에 양성평등교육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해주고 양성평등인식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많

은 연구들이 보고하였다(김완신, 2003; 성구진, 1995; 우민정, 1995; 이미숙, 2003). 따라서 양성평등교육은 유아기 때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기반이 될 수 있다(안은주, 2006).

양성평등교육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고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교육에의 접근기회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 등 교육의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성간 격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정해숙, 2001).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 양성평등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성평등교육은 교사에 의해 의도된 개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행되기도 한다. 교사의 의도된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양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과 관련한 이야기나누기, 동화, 게임 등 여러 유형의 활동들을 교사가 미리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이다(김현숙, 2003; 문종란, 2003; 이주경, 2007; 정은주, 2008). 또한 취학 전 유아가 올바른 양성평등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개발원(2000)에서 발간한 ‘취학 전 아동의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을 실행(강나루, 2006; 김은정, 2008)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교실 상황에 따라 사전 계획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양성평등교육은 미리 활동을 계획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유아들이 관심을 가지는 양성평등 관련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생각 나누기 및 모델링을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실행(류덕순, 2007; 손영빈 외, 2009; 정미라, 20011)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한편,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와 유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

과에 관련된 양성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태에 관련하여 손영빈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덕순(2007)의 연구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희연과 김명희(2012)의 연구에서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교수자료가 부족하여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재옥(1999)에 의하면 이미 형성된 성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할 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간으로 교육해야 효과가 있다.

또한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할 때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 역할 인식 및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은주(2006)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자신에게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내재되어 있어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할 때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노미영(2005)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본인의 성 차별적인 언어가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방해요인이 되어 양성평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변길희(1999)와 염정(2005)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부모의 성 고정관념에 따른 성 역할 의식과 태도, 그리고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로 인하여 유아 양성평등교육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유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적용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정은주(2007)의 연구에서는 남녀가 서로 다른 성에 대한 동등한 가치를 인식하고 평등한 성 역할, 직업에서의 역할 평등, 성차별에 대한 비판 등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을 적용시켜 유아에게 양성평등교육을 했을 때

유아의 성 역할 고정관념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 외에도 유아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 결과 직업, 색깔, 놀잇감, 가사, 육아, 성 구별 등에서 유아들의 양성에 대한 인식이 고무 향상되고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서혜성, 신혜경, 2007). 또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은 남아와 여아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고 가사 일, 직업, 놀이와 관련한 성 역할 태도의 측면에서 양성이 평등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들이 있다(강나루, 2006; 고유진, 2003; 김용란, 2005). 이러한 연구결과는 꾸준한 유아 양성평등교육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성 역할 고정관념 및 성 편견 의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와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중요성, 그리고 유아 양성평등교육 실행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지만, 현장에서 교사들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느끼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중요성과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한 경험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려는 교사에게 적합한 교육방법 및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유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유아 교사들의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경험과 요구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들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할 때 어떠한 교육방법을 실시하고 있는지,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와 교사들의 요구가 반영된 본 연

구결과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 양성평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3.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유아교사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3. 연구자

본 연구자가 중학생이었을 당시 연구자의 친척 중 직업으로 군인을 택했던 자매가 있었다. 그 자매는 일반적인 여성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인 이미지와 성격, 취향을 지닌 자매였다. 항상 짧은 스포츠머리 형태를 유지하고 즐겨 입는 옷도 어두운 계열의 색상이었다. 하지만 연구자의 자매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추구하여 자신이 꿈꾸고 그리던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유년기부터 전형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난 자매를 보고 자라왔기에 연구자에게 ‘양성평등’이란 낯설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는 개념이었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 유아교육 전공의 특성상 강의나 그 외의 상황에서도 유아들이 즐겨듣고 부르는 동화와 동요, 영상매체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이러한 교육매체를 접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놀랄 때가 적지 않았다. 유아들이 선호하거나 교육을 할 때 주요한 매체로 사용되는 동화, 동요, 영상매체 등에서 아직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화 또는 영상매체에서는 주인공이 남자이거나 남자 주인공이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는 내용이 많지만 그에 비해 여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드물다. 동요의 가사도 마찬가지로 성 역할을 선명하게 나누어 차별적으로 표현하는 곡들이 많다.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유아교육 매체를 접할 때마다 심각성을 느끼고 동기들과 유아 성 고정관념 형성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유아의 양성평등개념 형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매체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수정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바뀌본 후 실제로 유아들에게 적용해보았을 때 유아의 올바른 성 역할 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아교육 매체를 포함하여 유아가 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요인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성 고정관념 요소를 수정하

여 유아에게 적용하여 올바른 양성평등 개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학부 시절부터 관심 가지게 된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해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통해 접하는 기회가 생기면서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유아교육에서 유아 양성평등교육은 다른 교육들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실제와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의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자는 질적연구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현실과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연구하기 위해 교사를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사례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현실과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효과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이 어떠한 요구를 지니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유아기의 성 역할 발달

1) 유아기의 성 역할 발달이론

성 역할에 대한 개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생의 초기 단계인 유아기에 형성되어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달하게 된다. 성 역할 발달에 대한 이론은 크게 정신분석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 성 도식이론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김춘경 외, 2016; 이운정, 2012; 임효선, 2013; 최영주, 2001).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분석이론은 유아의 성 역할 발달을 이성 부모에 대한 초기 애착과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Freud의 정신분석이론은 동일시의 일차적 대상으로서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Freud는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와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의 결과로 보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남근기 시기에 3~5세의 남아는 애정하는 대상인 어머니를 얻기 위해 아버지의 남성적인 성향을 가지기 위한 기제로서 아버지에 대한 경쟁과 질투심이 승화되어 아버지를 동일시하여 남성다움을 배우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아도 남근 선망의 심리인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를 가지고 아버지의 애정을 얻기 위해 아버지의 애정의 상대인 어머니를 동일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유아가 자연스럽게 이성 부모에 대한 초기 애착을 느낀 후의 단계로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한다는 이론의 내용이다(최영주, 2001).

정신분석이론에 따르면 유아는 본인의 모델인 부모에 대한 태도와 신념 및 사고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 역할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시

의 과정에서 유아는 학습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모방을 통해서 자신의 성 역할을 습득하게 된다(최은옥, 2008). 그러나 정신분석이론은 부모 이외의 사회적인 요인들과 같은 다른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우민정, 1995).

둘째, 사회학습이론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통해 유아들이 성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정신분석이론이 성 역할 학습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사회학습이론은 부모를 포함한 폭넓은 사회적 환경, 즉 부모, 또래, 지역사회, 미디어 매체 등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성 역할이 후천적인 행동 양식으로 학습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이운정, 2012).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가 사회적 환경을 통해 남성은 남성으로, 여성은 여성으로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관찰학습이 일어나거나 모방학습이 이루어지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에 의해 성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고 설명한다(이은화, 이경우, 1987).

Bandura와 Mischel은 관찰과 보상 이외에도 학습과 행동을 이어주는 내적 정신과정인 동기와 기대의 영향이 유아들의 성 역할 발달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조경자, 1988, 재인용). 유아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 유형화된 기대에 따르기 위해 성 유형화된 행동을 하게 되며, 모델의 행동을 재현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그 행동을 재현하게 된다(장은진, 1992). 사회학습이론은 관찰학습 또는 관찰된 행동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통해 성 역할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성 역할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행동의 습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지적되었다(조경자, 1988, 유희정, 2000).

셋째, 인지발달이론은 유아가 외부 환경에서 자극이 주어질 때 인지과정을 통하여 구조화함으로써 성 역할이 발달된다는 입장의 이론이다. 앞서 살펴본 정신분석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은 유아의 성 역할 학습에 있어 외부적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강조하는 반면, 인지발달이론에서는 성 역할 학습 과정을 유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루는 것으로 보고 유아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한다(임효선, 2013). Piaget는 유아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성 역할 개념을 형성한다고 보았으며, 동일시의 산물이나 사회적 훈련의 결과가 아닌 인지발달과 성숙으로 인해 성 역할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였다(윤혜원, 1989).

인지발달 이론은 유아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환경적 요인을 성 역할 습득의 기제로 수용하였으나 정신분석이론, 사회학습이론과 마찬가지로 유아기에 성 역할 발달이 완성되면 이후에는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조경자, 1988).

넷째, 성 도식이론은 성 역할의 학습과정에 있어서 유아 각각의 개별적 도식을 강조한다. 성 도식이란 개인이 성과 관련된 정보에 주의 기울이기, 조직하기, 기억하기 등의 관심을 갖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성에 대한 신념과 기대체계인 인지구조를 말한다(김춘경 외, 2016). 이는 정보처리모형에 바탕을 두고 성 역할 발달 형성을 설명한 이론이다. 성 도식이론은 정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성에 대한 도식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대상과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나타나게 된다(고유진, 2003).

Bem은 사회환경을 구조적 관점에서 조직화하는 원리로서 성을 가정하고, 성 유형화가 유아의 인지발달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유아 자신의 성 도식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이순형 외, 2016). 즉 성 도식이론은 성 역할 학습을 유아의 인지적 과정에 근거한 것으로, 인지 과정 요소인 도식이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른 자극을 받음으로써 성 역할 발달에 개인차가 나타난다는 것이다(정민자 외, 2005).

성 도식이론은 인지발달이론과 비교할 때, 생애 초기의 성 역할 발달에서의 인지적·동기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가진

다(정민자 외, 2005). 그러나 인지발달 이론이 유아들의 성 항상성 획득을 성 역할 지식 발달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성 도식이론은 유아들의 성 역할 발달에서 성 항상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강화된 성 역할에 의해 정보를 조직화하고 반응하는 유아들의 준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유희정, 200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유아기 성 역할 발달은 부모를 동일시함으로써 성 역할이 발달한다는 정신분석이론과 부모, 또래, 지역사회, 미디어 매체 등과 같이 여러 방면의 사회적 요인을 통해 유아가 성 역할을 학습하여 발달한다는 사회학습이론, 유아의 인지능력이 발달할 때 외부자극 요인을 통해 능동적으로 성 역할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인지발달이론, 그리고 인지발달의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자극으로 유아 각각의 개별적 도식을 강조하는 성 도식이론 등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2) 유아 성 역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들의 성 역할 발달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 고희과 황정련(2013)의 연구에서 교사와 부모가 생각하는 유아의 성 역할 사회화 형성 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 역할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 요인과 사회환경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여러 가지 주변 요인들이 유아의 성 역할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가정환경의 영향과 사회환경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환경의 영향

인간은 태어나서 가정에서 주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주 양육자와의 애착과 주 양육자에게서 받는 모든 영향은 개인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 양육자가 갖는 성 역할 인식과 자녀의 양육 방식, 직업 등은 유아의 성 역할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용한 요인이 된다(김아름, 2011).

주 양육자의 성 역할 개념이 고정관념적이지 않을 때 유아의 성 역할 발달도 양성평등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류덕순, 2007). 정연숙(1991)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남성성과 여성성을 고루 갖춘 양성성을 염두에 두고 자녀교육을 할 때, 유아가 양성 평등적인 성 역할 개념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진(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유아들은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유아들보다 성 차별적인 지식과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는 어머니가 가정에 있는 유아일수록 어머니와 상호작용의 기회가 잦고, 성 정형화된 상황을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역할이 유아의 성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아버지가 양육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낮고(임지희, 2014),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여아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유연하게 하고 이를 매개로 유아의 내적 동기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하수정, 박성연, 2011).

또한 가정 내에서 유아의 형제자매 유무와 순위, 성별과 터울 등이 성 역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선숙, 1992; 최보가, 1993). 형제자매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같은 성의 형제자매인 경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성 역할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반대의 성을 위로 둔 경

우는 자신과 다른 성 역할에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이은화, 이 경우, 1987). 또한 동성형제를 가진 남아들이 이성형제나 동성형제를 가진 여아에 비해 더 남성적이라고 보고되었고(이명희, 2008), 여아의 경우에도 여성형제만을 가진 여아들이 이성형제를 가진 여아들보다 더 여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Vroegh, 1971, 김아름, 2011에서 재인용). 이는 동성의 형제끼리는 놀이하는 방식이 유사하고, 참여도가 높음으로 성에 적절한 행동을 빠르게 습득하게 됨으로써 성 역할 고착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유아는 성 역할 발달에 있어서 양육 태도, 형제 관계, 상호작용 등의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가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부모 교육이 필요하며,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양성평등적인 가정 분위기를 형성하고 가정 내의 일상에서 양성 평등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사회 환경의 영향

유아의 성 역할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환경에는 또래, 교사, 다양한 매체 등이 포함된다. 먼저, 유아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유아들의 성 역할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래의 행동과 그에 대한 주변 반응을 관찰하고 모방하거나 동일시함으로써 성 역할을 학습하기도 한다(최경화, 2001).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또래와의 놀이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 유아들은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또래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의 일상적 경험은 유아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 역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심미옥, 1999). 또한 성수경(2009)의 연구에서도 5세의 남아와 여아 모두 같은 성을 가진 또래들과의 놀

이나 상호작용을 선호하였고, 유아들이 각각 사회에서 기대되는 성 역할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성 역할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모를 대신하여 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행동의 모델이 되는 교사 역시 유아의 성 역할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은 유아의 성 역할 형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고현, 황정련, 2013), 교사의 성 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비의도적인 언어와 교수내용 및 교수자료 등과 같은 요인도 유아의 성 역할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정민자 외, 2005). 그리고 Ehrenshaft(1977)는 3-5세 유아들이 재원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이 성차별 없이 유아들을 모두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 활동에서는 교사들이 무의식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김아름, 2011에서 재인용).

또한 동화책이나 미디어 매체 등의 여러 가지 매체를 접하는 경험은 유아들의 성 역할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김명희(2002)는 유아들이 즐겨보는 만화에서 여자 주인공에 비해 남자 주인공이 더 많은 출연 비중을 차지하고, 리더 역할로 나오는 횟수가 많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남자 주인공에 비해 여자 주인공은 감정적이고 순종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소극적인 역할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시각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자주 접하는 청각적 미디어 매체인 라디오 광고에서도 불평등한 성 역할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조이영, 김희정, 2016)도 있다. 2011~2015년까지 방영된 240편의 라디오 광고를 분석한 결과, 여성 화자가 남성 화자보다 등장한 횟수는 많지만 여성은 온순하고 조용하며, 사회적 성공보다는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과 같은 전통적인 성 역할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유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

디어 매체는 주로 남성 중심적이며 차별적인 성 역할을 바탕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박은하(2009)는 4-7세 유아 대상의 한국 전래동화에 나오는 언어가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남자는 바깥에서 직업을 가지고 업무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주인공 역할을 맡아 용기와 지혜를 주는 인물로 표현된 반면, 여자는 부정적 혹은 비하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유아들을 위한 동화 및 교구는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교육 매체이며 유아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동화책의 등장인물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하기 때문에 유아의 성 역할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성정아, 1995; 정해숙 외 1995).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유아는 성 역할 발달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환경들인 또래관계, 교사역할, 학습매체 등 사회 환경의 영향 등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가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아의 성 역할 발달에 영향을 주는 밀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유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환경인 것이다.

2. 유아기의 양성평등교육

1)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오늘날 우리사회는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전통적인 성 역할 태도와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남성들의 육아휴직, 성 편견 없는 직업 선택, 미디어 속의 불평등한 성 역할 요소 제거 등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박미진, 2017; 방우리, 2017, 전별, 2017). 현대 사회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지만 실제적

으로 여성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직업 선택의 한계와 자녀 양육,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 등의 전통적인 성 차별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심미혜, 2013). 최근 여성가족부(2017)에서 전국 400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성평등 실태 조사 분석에 따르면 ‘가사와 돌봄시간’, ‘직장 내 성차별’, ‘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등의 항목에서 양성평등이 평등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의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15). 또한 양성평등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잠재력과 결과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남녀가 동등한 조건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2). 또한 양성평등은 또한 남녀 간의 성 역할을 구분 짓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장성자, 2003)을 의미한다.

양성평등교육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양성평등교육을 성별에 따른 차이 및 차별을 두지 않고 같은 인간으로 동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양성평등교육이란 남녀가 타고난 성으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생물학적인 차이만을 수용하며 남녀의 관계를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성평등교육이란 남녀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기본전제로 놓고 교육해야 함을 의미하고(정은주, 2008), 남녀의 평등하지 않은 위계 관계를 전제로 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등한 남녀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교육이다(김선희, 2002). 양성평등교육은 또한 여성이 차별받거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를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고 평등함을 부여하려는 시도(교육인적자원부, 2004)이다.

양성평등교육은 남성과 여성 중 어느 한 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감정이

나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 성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하고, 생물학적 차이가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가진 교육이다(교육부, 1999).

더 나아가, 정해숙, 양애경, 김홍숙(1995)은 양성평등교육이란 기본적으로 각각의 성별을 가진 인간 모두가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전통사회의 성 역할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 및 소질, 능력, 타고난 성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학업 성취 등 배움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격차를 해소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유아 양성평등교육은 유아들이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차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성차별인 이데올로기를 바로잡아 올바른 성 역할과 양성의 개념을 습득하게 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해숙 외, 1995). 또한 유아기 양성평등교육은 남녀의 신체 특성 알기, 다른 성에 대해 동등한 가치 인식하기, 평등한 놀이, 가정에서의 평등한 성 역할, 직업에서의 평등, 성차별에 대한 비판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의미한다(유희정, 2000).

또한 정혜윤(2001)은 남녀에게 평등한 교육의 목적, 과정, 기회, 내용, 과정, 방법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 불평등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남녀 모두가 자신의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양성평등교육이란 성별에 대한 차이와 차별을 두지 않고 남녀가 동등한 존재임을 인식하기 위한 교육이며, 동시에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 및 소질을 발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교육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 양성평등교육이란 유아기 때부터 성차별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고 올바른 성 역할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여 자신의 소질과 재능 및 잠재력을

생애 초기부터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유아기는 사회가 요구하는 성 역할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 역할 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구은옥, 2009).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양성평등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성구진(1995)의 연구에서는, 두 학급의 5세 유아들을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인 한 학급의 유아들에게 반편견 그림 동화 및 이야기나누기 등을 활용한 양성평등교육을 제공한 결과 통제집단보다 성 역할 고정관념, 성 역할 식별, 성 역할 선호도가 완화되었고 양성평등인식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결과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양성평등교육은 유아기 때부터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양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기반이 될 수 있다(안은주, 2006). 유아기는 성 개념 발달의 시초가 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형성된 개념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의 양성평등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내용 및 방법

교사가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놀이 속에서의 평등함과 유아의 성 역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 평등한 성 역할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더불어 유아의 주변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평등함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평등한 직업 지도로 확장 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 차별적 이슈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교사는 유아의 양성평등적인 개념 형성 및 태도를 위해 양성평등교육을 꾸준히 실행하여야 하고, 잘못된 성 평등 의식을 가진 유아의 부적절한 사고

및 태도가 변화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고미경, 2007).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교수방법은 크게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교수방법,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교수방법,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가정과 연계하는 교수 방법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활용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교수방법이 있다. 따로 양성평등교육 시간을 내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거나 매체 및 환경의 제약을 두고 교육을 하지 않고 일상에서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미디어 매체 속 기사나 영상 등이 보도될 때 자연스럽게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정미라, 2011). 또한 교사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유아들이 관심 갖는 상황들 가운데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다루어 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교수방법은 미리 계획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용이하고, 상황에 따른 실천적 교육적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손영빈 외, 2009). 이처럼 일상생활을 활용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교수방법은 교사가 미리 연구하고 계획하여 실행되는 계획적, 의무적인 교수방법보다 유아들의 관심사나 상황, 이슈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유아들의 흥미를 높이고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둘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교수방법이 있다. 유아의 흥미와 발달수준을 기초로 양성평등과 관련한 이야기나누기, 동화, 노래, 역할놀이, 게임, 작업 등이 포함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한 결과, 유아의 양성평등적인

역할 인식과 태도가 향상되었고,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강나루, 2006; 김완신, 2003, 김용란, 2005)가 보고된 바 있다.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활용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교수방법은 한가지 유형에만 양성평등 요소를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유형에 접목하여 양성평등교육을 대집단 또는 소집단, 활동, 그리고 개별 활동으로 전개하여 다양한 활동유형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성 역할 인식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교수방법이다.

셋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가정과 연계하는 교수 방법이 있다. 박지영(2010)은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와 함께 양성평등교육 활동을 경험한 유아들의 성 역할 식별과 성 역할 선호도 측면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 완화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가정과 연계하여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부모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가정연계 활동은 유아들과 부모들의 성 역할 고정관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진화, 2009; 박주영, 2010).

이와 같이 유아 양성평등교육 내용 및 교수방법을 종합해보면, 유아 양성평등교육은 놀이 속의 평등함, 가정에서의 평등함, 주변 환경에서의 평등함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 차별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교수방법은 시간 및 환경의 제약을 두지 않고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교수방법과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활용하여 양성평등과 관련한 이야기나누기, 동화, 노래, 역할놀이, 게임, 작업 등의 여러 유형의 활동을 통해 유아의 성 역할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켜 주는 교수방법이 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를 활용하여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 역할 고정관념도 감소시키는 교수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3)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유아에게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과 역할모델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양성평등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김양완, 2006).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먼저 자신이 올바른 성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해보아야 한다. 유아는 교사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므로 교사는 양성평등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순형 외, 2016). 안은주(2006)에 의하면 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 역할 인식을 주로 발화를 통해 드러낸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녹화하거나 녹음을 하고, 반성적 저널 쓰기 등을 통해 반성적 사고를 함으로써 교사 자신이 유아들과의 대화와 활동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는 실제로 교사의 양성을 평등하게 대하는 교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박수옥, 2003; 이진향, 2002; 최옥규, 2003; 최진섭, 1996). 또한 김경식(2000)에 의하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개념이 양성평등적인 개념으로 변화될 때, 유아들이 받아들이는 성 역할 인식이 교사의 성 역할 개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고, 교사들이 남아와 여아에 대한 성 고정관념 및 성 편견을 지니는 경우 유아들에게 무의식적인 차별이 가해지거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유아들의 교육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게 된다.

교사는 유아에게 자신의 경험, 지식, 신념 등에 따라 유아와의 여러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의 경험과 의미형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교사가 가지고 있는 성 역할 인식은 잠재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유아에게 전달한다(손유진, 2012). 따라서 자신의 성 역할 의식을 다시 정립하고 이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이빛나, 2015).

둘째, 교사는 유아에게 올바른 양성평등교육을 하기 위해 성 차별적이지 않은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사는 유아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할 때 자신이 가르치는 교육 내용과 그에 따라 제공되는 매체가 남아와 여아 간에 평등한 기회를 주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는지 점검해보아야 한다(김양완, 2006). 교사는 유아에게 제공하는 교육 내용이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적절한 구성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는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부적절하게 구성된 교육 내용을 유아들이 무의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유아들이 성차별 의식이나 왜곡된 성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교사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하기 위해 가정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가정과 연계하여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질 때 부모가 자녀를 양성평등하게 양육하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유아의 성 역할 형성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구은옥, 2009). 유아의 성 역할 개념이 일차적으로 형성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성 역할 관련 태도는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이승렬, 2008). 따라서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교사가 유아교육기관에서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와 생각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가정과 연계된 양성평등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교사는 유아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성 역할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성 역할 인식은 스스로 비판과 분석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반성적 사고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설계자의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가정과의 연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연결자 및 연구자의 역할을 한다.

3. 선행연구

유아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성평등교육 인식과 실태의 요구도 조사 연구,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경험에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유아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설문지나 검사지를 분석한 양적연구이며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과의 면담 또는 참여 관찰에 의한 사례 중심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실태,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할 때 겪는 어려움에 관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과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양성평등교육을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주어진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며,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류덕순, 2007).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교육방법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류덕순, 2007; 이재옥, 1999; 정미라, 2011), 양성평등교육을 직접 실행하여 본 경험의 기회도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김희연, 김명희, 2012; 정미라, 2011).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평등교육 관련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양성평등교육 관련 교사연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황정아, 2002, 이영란, 2011)

둘째, 유아 양성평등교육이 유아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분의 교사들은 적절한 교재교구와 다

양한 놀잇감을 활용하여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재옥, 1999), 교사들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중에 성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상황에 따라 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양성평등에 관한 동화책을 탐색해보거나 미디어 매체를 통한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미라, 2011).

한편, 교사들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교육 자료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류덕순(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을 목적으로 발간된 책을 통해 교육을 하거나 미디어매체를 통해 교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강나루(2003)와 정은주(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서 발간된 지도자료를 활용하여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들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결과(안은주, 2006; 이재옥, 1999)에 의하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과 태도로 인해 양성평등교육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희(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은 다른 교육 활동들에 비해 활동접근 및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손영빈 외(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수자료가 한정되어 있어서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윤미순(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의 성 고정관념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미라(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가정과의 연계를 시도하여도 가정에서 양성평등교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종합해보면,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지식과 실행 기회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할 때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교재교구를 이용하거나 일상에서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자연스럽게 교육을 실행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교수매체, 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교사,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유아들의 부정적인 성 역할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실제 경험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유아교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고, 알고 있으며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문화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Spradley, 1979)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경험의 사례를 바탕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참여자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지지하는 동시에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정규과정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자와 기존에 레포 형성이 이루어졌는지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둘째, 다양한 사례들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유치원에 근무하는 만 3세에서 만 5세 담임교사 중 초임교사부터 10년 차 경력을 가진 교사들을 선정하였다. 셋째, 기관의 환경 특성 및 교사 개인의 교육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서 교육과정반 담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부분들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가 보호해야 되어야 하고, 익명성 역시 보장되어야 하는 연구 윤리 원칙(Spradley, 1979)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연 령	학 력	교사 경력	담당 학급 연령
김 교사	만 33세	3년제 대학 졸	8년	만 3세
박 교사	만 25세	3년제 대학 졸	6년	만 4세
백 교사	만 25세	4년제 대학 졸	2년	만 5세
안 교사	만 34세	대학원 재학 중	10년	만 5세
이 교사	만 28세	3년제 대학 졸	3년	만 3세
전 교사	만 27세	대학원 졸	4년	만 5세
정 교사	만 30세	4년제 대학 졸	7년	만 5세
조 교사	만 35세	3년제 대학 졸	8년	만 4세
최 교사	만 29세	4년제 대학 졸	6년	만 4~5세(혼합연령)
하 교사	만 25세	4년제 대학 졸	3년	만 4세

(1) 김 교사

김 교사는 2년제 보육학과를 졸업한 후 4년 동안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다가 다시 3년제 유아교육과에 진학하였다. 김 교사는 유아교육과에 진학 후 졸업 때까지 3년 동안 어린이집 교사직과 학업을 병행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 7년의 경력과 현재 유치원 정담임 교사 1년의 경력을 지닌 총 경력 8년 차 교사이다. 김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부터 영아들의 성(性)과 성 고정관념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유치원에 근무하다 보니 영아보다 유아에게서 성 고정관념적인 사례를 더 많이 관찰하게 되었고, 연령에 따라 성 고정관념과 성 차별적인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경험하였다. 또한 현재 김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유치원 전체에서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동료교사 중 남자교사가 있어서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2) 박 교사

박 교사는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교사로 재직 중이다. 박 교사는 먼저 유아교육의 길을 걷고 있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유아교육과에 진학했다고 하였으며, 대학 입학과 동시에 낮에는 유치원 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퇴근 후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였다고 했다. 때문에 현재 교사경력 은 보조교사의 경력까지 더하여 6년이 되었다고 하였다. 예비유아교사 시절 부터 현장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전공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는 중이다. 박 교사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어머니께서 퇴근 후 집에 오시면 유아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했다. 박 교사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어머니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조언에 따라 최대한 유아들에게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백 교사

백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현재 교사로 재직 중이다. 경력 2년 차 교사이며, 현재 만 5세 담임교사를 맡고 있다. 백 교사는 학부 시절 부터 본 연구자와 틈틈이 시간을 내어 본인이 가르칠 미래의 유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누리과정에 기초한 교육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 교육하고 싶은 새롭고 신선한 교육 주제를 탐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토론 주제 중 유아 양

성평등교육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주 언급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 아직은 경력 2년의 초임교사이지만 유아들에게 신선하고 유익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백 교사는 현재 전공 지식과 학문 탐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4) 안 교사

안 교사는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뒤 1년 동안 전공심화과정을 거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로서 약 10년의 경력을 쌓은 교사이다. 초임으로 근무했을 시절의 안 교사는 양성평등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성평등교육을 유아들에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어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에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5) 이 교사

이 교사는 3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근무하였다. 그 후 3년제 유아교육과에 진학 하여 졸업하였다. 현재 어린이집에서의 근무 1년 경력과 유치원에서의 근무 2년 차로 총 3년 차의 교사이다. 이 교사는 평소 성 평등, 페미니즘, 동성혼 등과 같은 성(性)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6) 전 교사

전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박 교사와 같은 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전 교사는 박 교사와 동일한 연령의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연령에 적합한 발달특성과 교육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눌 뿐만 아니라 박 교사가 중시하는 유아 양성평등교육

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박 교사와 의견을 나누다 보니 전 교사도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가 면담을 청했을 때 흔쾌히 응해주었으며 면담을 마친 후 면담을 통해 느낀 점과 현재 교사가 실행하고 있는 유아 양성평등교육 방법 및 교사의 성 고정관념 의식에 대해 반성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7) 정 교사

정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7년 동안 근무한 교사이다. 정 교사가 근무하는 유치원에서는 동료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데, 유아들의 성에 관련한 이야기와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토의 주제가 나올 때마다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배울 점도 많았다고 말하며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8) 조 교사

조 교사는 4년제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직장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평소 유아를 좋아하고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조 교사는 이후 유치원에서 유아들의 영어교사로 근무하였다. 유아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유아교육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되어 3년제 유아교육과에 진학하였다. 조 교사는 졸업과 동시에 유치원에서 정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유치원 정교사로서의 경력은 아직 3년뿐이지만 그 전부터 유아들의 영어교육을 담당하였으므로 유아들과 함께 보낸 기간은 8년이다.

(9) 최 교사

최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한 곳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며 만 4~5세 혼합 연령반을 맡고 있다. 최 교사는 사회 속에서 단지 여성이기에 차별받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동시에 평소 교사의 성 고정관념 및 성 역할에 대한 차별적인 의식으로 인하여 양성평등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교사들의 노력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였다.

(10) 하 교사

하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3년째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졸업 전 1년 동안 부담임 생활을 하였고, 졸업 후에도 전공 지식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론공부도 꾸준히 병행하였다. 부족함 없는 담임교사의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하 교사의 의욕은 양성평등교육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 중에도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 가장 많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사이다.

2. 연구 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에 앞서 2018년 2~3월에 걸쳐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교사 2인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교사 1인당 총 1회씩 40~50

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교사들과 면담을 하기 전에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면담 내용을 녹음자료로 수집해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면담을 하였다.

면담을 통해 교사들이 양성평등은 유아기 때부터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이 그동안 실행해 온 양성평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유아 양성평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사와 부모가 올바른 성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비 연구 결과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 그려지는 각각의 이미지는 성 편견적인 대답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은 후 그와 관련된 질문은 조금 더 개방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형식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질문 내용 중 애매한 내용이 담겨있거나 잘못된 질문 순서 등은 내용 보완이 될 때까지 수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했던 내용과 일치하여 본 연구로 확장시켜 심층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본 연구

본 연구에서는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교사 10인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교사 1인당 2~3회의 개별 면담이 이루어졌고, 면담시간은 1회당 약 6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를 미리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여 기관에 대한 이야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레포 형성을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연구자 기억의 한계 수

준을 고려하고 연구결과의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이 될 것이며, 면담 당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연구자와 연구자들의 감정과 연구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록하기 위해 연구자 노트를 작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사전에 동의를 얻었다. 그 후 면담은 참여자가 선호하는 날짜에 맞춰서 진행하였고 면담 장소는 참여자가 원하는 지역의 카페를 이용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면담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였다. 10명의 교사들과 총 24회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질문과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시에는 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하여 추가 면담을 하였다.

교사들과의 심층면담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을 사용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이란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면담이 진행되고 면담자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피면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면담이다(김영천, 2006).

교사들과의 면담에서는 현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과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 차별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답변이 나오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요인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반구조적 면담 내용

구분	반구조적 면담 내용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내용과 방법 •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주요 사례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겪는 유아교사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의 어려움 • 유아 성 역할 고정관념의 주요 요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역할 고정관념 탈피를 위한 반성 및 교육 지원 요구 • 현 유아 양성평등교육 자료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요구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주요 자료는 면담 전사물과 연구자 노트이다. 연구자 노트에는 면담 시 녹음자료에 담지 못하는 면담 상황에서 중요하게 관찰된 것, 연구자의 느낌, 아이디어 등을 기록하였다. 연구자는 녹음자료를 바탕으로 면담 상황의 물리적 배경, 대화의 재구성, 연구자의 행위 등의 내용을 함께 담아 전사하였고 전사 당시의 상황에 대한 느낌이나 해석, 발견한 점과 분석에 대한 반성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관찰자 주해(O.C.: Observer's comment)를 적어 전사본을 완성하였다.

Bogdan과 Biklen(1992)의 제안에 따라 완성된 전사본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록한 연구자 노트를 주의 깊게 반복하여 읽으며, 공통적인 내용을 범주화하고 요약하는 부호화 작업을 거쳤다. 분석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유아교사의 생각’, ‘유아 양성평등교육 방법’, ‘유아 양성평등교육 시 느끼는 어려움’과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제안’으로 1차 범

주 목록을 분류하였다. 그 후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와 1차 범주 목록을 대조하면서 다시 수차례 읽은 후 각 범주의 의미와 연관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이후,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실제’, ‘유아 양성평등교육과정에서 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유아교사들의 생각’으로 최종 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와 분석 과정 및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Lincon과 Guba(1985)의 신뢰성 준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김영천, 2006, 재인용). 연구 참여 교사들 중 일부 교사들에게 범주화된 연구결과를 보여주는 참여자 확인(member check) 방법을 거쳤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 분석의 기준을 만들고 분석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현재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 동료 2인에게 검토를 요청하였고, 질적 연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

IV. 결과 및 해석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교사들이 실행하고 있는 유아 양성평등교육 방법 및 교육의 실체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그리고 효과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실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아 유아양성평등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실행한 교육방법은 교사가 계획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과 교사가 양성평등교육을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성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양성평등교육

교사들은 유아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바탕으로 사전에 수업을 계획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정해진 교육과정 속의 틈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양성평등교육을 연계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을 계획할 때에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난 소재들을 찾아서 유아들과 함께 수정해보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수 자료를 사용하거나 교사가 직접 계획한 양성평등 교수 자료를 사용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정해진 교육과정 속 틈 활용하기

교사들은 이미 유치원의 교육과정 내용과 양성평등교육 내용을 연계하여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교육과정 속 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야기나누기 활동은 대집단 활동 중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유아들에게 내용이 전달되는 활동이며, 대집단을 상대로 교육과정 속 틈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유형 중 가장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말하였다.

예를 들면, 제가 ‘나와 가족’이란 생활주제로 수업을 하던 때였는데, 그 때 양성평등교육도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쓰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와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 때, 아이들에게서 ‘아빠는 회사에 가서 늦게 들어오시고, 엄마는 항상 요리하고, 나를 데리러 오는 역할’이라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성 역할 태도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남자가 요리하고 있는 사진과 여자가 오피스룩을 입고 일을 하고 있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성 역할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교사, 2018. 7. 7)

이야기나누기를 활용해서 주로 교육을 해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대집단 활동 중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수업 방법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생각도 말로 직접 들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기 초 생활주제가 ‘유치원과 친구’잖아요. 그 생활주제에 맞는 수업을 하면서 틈틈이 아이들이 또래 친구와 관계를 맺을 시기쯤에 항상 성별이 다른 친구와 나의 차이점이라든지 각각의 성별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만약 성 역할에 대해 평등하지 않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수정을 해주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특히 혼합 연령반이라서 만 5세 아이들이 하는 작은 행동과 생각까지 만 4세 아이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최 교사, 2018. 7. 21)

‘나와 가족’이 주제일 때 전통교육을 하는데 옛날 시대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경우가 일상이었잖아요.. 옛날과 오늘날을 비교하면서 여성의 인권이나 남녀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보았어요. 그리고 결혼 프로젝트 할 때도 옛날 결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여성의 혼인 나이와 이유 등 여자가 차별받았던 사례에 대해 알려주고 현대로 오면서 달라진 결혼문화와 그에 맞는 양성이 평등한 성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대집단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틈틈이 양성평등교육을 함께 하려면 이야기나누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교육방법인 것 같아요.

(하 교사, 2018. 6. 8)

또한 조 교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교육활동이지만, 8~9월의 생활주제인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와 관련하여 전통의상을 입어보거나 전통춤을 추는 활동을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아니지만 8~9월에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배우는 시기잖아요. 그때도 세계 여러 나라의 양성평등의 실태나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고,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세계 전통의상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도 갖는데 그때 세계 전통의상들 보면 남자 의상인데도 긴 원피스처럼 되어 있는 의상에 대해서도 함께 양성평등교육 쪽으로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전통춤이 훌라춤인데.. 대중적 시선에서 훌라춤은 여자들이 많이 추는 춤이라고 인식하잖아요. 하지만 전통춤이기 때문에 남녀 상관 없이 추는 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아이들과 함께 나폴나폴한 의상까지 입고 직접 체험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조 교사, 2018. 7. 9)

이처럼 교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나 앞으로 제공될 교육과정 속 틈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연계되는 양성평등교육을 틈틈이 실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은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정해지거나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집단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속 틈을 이용한 활동 중 가장 자연스럽게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소재 찾아 수정하기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소재를 찾아서 유아들과 함께 수정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교사들이 발견한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난 소재에는 대중적인 동요나 많은 유아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중 성 차별적인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 동요가 있었다. 교사는 성 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동요 가사들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유아들과 해

당의 동요 가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성 차별적인 용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사해보는 활동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교육계획 및 실행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 차별적인 요소가 담긴 동요들이 은근히 많아요. 옛날에 만들어진 동요를 지금까지 불러오다 보니 아이들이 동요를 통해서도 성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기 초에 나와 가족 주제로 할 때 ‘○○이 되면’이라는 동요로 수업을 계획해서 교육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 노래는 부모님의 역할을 나누는 전형적인 성 차별 가사가 담긴 노래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기존 가사의 역할을 바꿔보기도 하고 직업을 넣어서 불러보는 활동을 했었어요.

(하 교사, 2018. 6. 8)

‘○○가족’ 노래 아시죠? 저는 그 동요를 정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자마자 아이들과 가사를 바꿔보자고 제안을 하면서 수업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나중에는 우리끼리 개사한 가사로 더 많이 흥얼거리더라고요. 이런 노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아이들도 성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정 교사, 2018. 8. 25)

한 3년 전쯤인가? 한창 ‘○○ 힘내세요’라는 노래가 성 차별과 성 고정관념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 노래가 남녀 차별적 요소가 심하다고 논란이 됐었는데 솔직히 저는 많이 심각함을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억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슈가 됐으니까 한 번 짚은 다뤄 봐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랑 가사에 아빠 대신 엄마를 넣어 부르기도 하고, 나에게 응원할 수 있는 말을 넣어서 불러봤었던 기억이 나요.

(이 교사, 2018. 7. 14)

하 교사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동요 ‘○○이 되면’ 가사에는 회사에 가기 위해 넥타이를 착용한 아버지와 집안일을 하기 위해 행주치마를 입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정 교사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요 ‘○○ 가족’ 가사에는 조부모와 부모의 외적인 모습을 성 고정관념적인 형태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러한 전형적인 성 고정관념에 따른 역할이 담긴 동요 가사를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양성평등적인 남녀의 모습이 그려지도록 유아들과 함께 개사를 해보거나 양성평등적인 역할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개사 활동을 진행하며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난 소재 중 대중화되어 있거나 유아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속 성 차별적이나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반영된 가사들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난 소재인 동화를 찾아 유아들과 함께 탐색한 후에 동화 속 주인공들의 성 차별적인 요소에 대해 토론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 사례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동화 내용을 개작해보는 활동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제가 성 역할 고정관념 요소가 나타나 있는 동화를 찾아서 내용을 탐색한 후에 동화 속 주인공들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난 모습과 특징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했어요. 여자 주인공이 장군 갑옷을 입는다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역할을 바꿔서 놀이해보면 어떠 할지.. 아이들이 생각보다 토론에 즐겁게 참여를 하였고 아이들 모두 토론 주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서 동화를 다시 수정해보는 활동도 해봤어요. (안 교사, 2018. 8. 31)

이처럼 교사들은 유아 주변에 가까이 존재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난 소재를 찾아서 유아들과 생각을 나눠보고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지 않도록

록 수정해보는 활동을 통해 유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요나 동화에 성 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내용이 없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유아들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생기거나 더욱 확장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양성평등교육 내용이 담긴 교수자료 사용하기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을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수자료를 사용하여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고 있었다. 먼저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교사들은 교수자료인 ‘동화책’을 많이 사용하였다. 교사들은 양성평등 요소를 담고 있는 동화자료를 선정하여 동화 내용을 탐색한 후 연계활동으로 유아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성 차별적인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양성평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동극 활동을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고 있었다.

나와 가족 주제로 수업을 할 때 ‘돼지책’과 같은 성 평등 동화책을 활용 할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해요. 아이들과 동화책 활동을 한 뒤에 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동극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요. 아이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서 성 차별 문제를 겪어보고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어요. (조 교사, 2018. 7. 9)

저는 동화활동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때가 많아요. 동화책은 제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종이봉지공주’라는 책을 아이들과 함께 살펴본 후에 왕자를 위해 용감하게 맞서 싸워준 공주가 뒤늦게 왕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장면을 보고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 왕자에게 무시를 받았지만 슬퍼하지 않고 씩씩하게 돌아선 공주를 보고 드는 생각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동극을 해보면서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보거나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직접 내용을 바꿔서 극 놀이를 해보는 연계 활동까지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공주님이 참 멋있으면서 서로서로 공주역할을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박 교사, 2018. 7. 7)

또한 최 교사는 동화와 연관된 활동지를 이용하여 동화 연계활동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면서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수자료의 사용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치마를 입어야지, 아멜리아 블루머!’라는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는 여성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드레스에 저항하면서 활동성이 좋은 블루머에 길이가 짧고 폭이 좁은 치마를 함께 입음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19세기 미국의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지어진 동화거든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룰 때 접목시켜서 활동했었어요. 그 동화를 이용해서 양성평등교육을 할 때 내가 만약 아멜리아라면 어떠한 옷을 입고 싶은지, 옷 색깔로는 어떤 색을 선택할 것인지.. 양성평등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상상을 한 후에 꾸며볼 수 있도록 학습지를 제공했었어요. 아무래도 동화 내용만 보고 끝나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통해 교육 효과가 더 잘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 교사, 2018. 7. 21)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수자료로 양성평등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화책을 사용하면서 동화와 연계된 활동까지 실행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연계 활동 후 유아들이 교육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는 점, 활동을 통해 나타날 유아들의 성 평등 개념을 확립하기를 기대하고 있 다는 점을 통해 교수 자료의 선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흥미로워하는 활동이 게임 활동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양성평등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자료를 사 용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고 있었다. 특히 박 교사는 유아들의 성 역할 개념을 형성하는 요인 중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참여 수업 때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게임 활동을 진행했다고 언급하였 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저는 부모참여수업 때 양성평등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요, 부모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성 역할 개념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 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교육 참고자료의 도움을 받아 부모 와 함께하는 게임 활동을 진행했었어요. 먼저 가족 구성원에 대해 소개 하고 어렸을 적 부모님께 보살핌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게임 활동을 했거든요. 수업 계획을 할 때 애기를 돌보는 것 은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할 가족 공동역할이라는 것을 활 동의 목표로 잡고 계획했어요. 이 게임은 남녀 비율을 적절하게 두 팀으 로 나눠서 갓난아기 인형을 더 안전하게 빨리 데리고 오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 게임 활동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던 부모님들에게도 애기를 돌보는 일은 모든 가족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 는 일이라는 교육목표가 분명 전달되어서 부모교육도 됐을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어요.

(박 교사, 2018. 7. 7)

아무래도 게임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참여율도 굉장히 높은 활동 유형이잖아요. 즐겁게 참여하는 만큼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도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쉽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요?...바로 얼마 전에 했던 게임 활동이에요. 지금 저희가 신나는 여름 생활주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복장들이 다양하잖아요. 악세사리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어울리는 복장 그림 카드 게임을 했어요. 게임 방법은 성별을 제시해주고 어떠한 복장이 어울리는지 알맞은 카드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활동 전에 이야기나누기를 통해 충분히 성별에 맞는 복장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룬 후에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제 취지대로 잘 따라 와주고 마무리까지 잘했었어요. (백 교사, 2018. 7. 21)

또한 안 교사는 직접 참관했던 유아축구교실 상황을 떠올리면서 축구는 남아만 할 수 있는 신체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유아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남아와 여아가 모두 함께 하는 짝꿍 축구 게임을 계획하여 실행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안 교사의 사례는 다음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 주말마다 유아 대상으로 축구 교육을 하는 축구교실에 참관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자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도 축구를 너무 밝은 표정으로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구는 남자친구만 즐기는 스포츠가 아니라 남녀 모두가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남녀가 함께하는 짝꿍 축구게임 활동을 계획해서 진행했었는데, 처음엔 여자친구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를 도와주면서 함께 재미있게 축구 게임을 하더라고요.

(안 교사, 2018. 8. 31)

이처럼 교사들은 유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활동유형인 게임활동을 교수자료

로 선택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유아들의 수준에 맞춰 더 재미있고 쉬운 방법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유아의 성 역할 개념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게도 양성평등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게임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교사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남녀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게임을 제작하여 활동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을 한 결과, 유아들이 가진 능력을 친구와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정 교사는 남녀의 일상복과 직업 유니폼 등, 특히 여자의 역할에도 바지와 짧은 머리를 포함시켜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성별에 따라 고정된 외모가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교수매체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남녀 유아 인형과 직업에 맞는 유니폼과 여러 일상복이 제시되어 있는 교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히고 싶은 성별에 유니폼을 다 입혀보면서 직업에 대한 성 편견을 없애고, 여자에게도 바지와 짧은 머리를 적용시켜서 성 고정관념을 없앨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교구를 역할놀이영역에 제시해줬었는데 아이들이 다양한 경우를 시도해보면서 재미있게 놀이하고 있어요. (정 교사, 2018. 8. 25)

한편, 다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 교사는 학급 유아들이 서로의 취향을 알아볼 수 있고, 더불어 그 속에서 성별에 따라 나뉠 수 있는 경우를 제거한 그래프 매체를 사용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아이들과 운동에 대한 수업을 한 후에, 우리 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종목은 무엇인지,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조작 영역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 그래프를 제시했어요. 그래프의 운동 종목 보기는 아이들과 함께 정했고, 행여 아이들이 성 편견 사고를 가지게 될까봐 그림은 남녀가 같이 운동하고 있는 것을 제시해주었고요. 그 결과 아이들과 함께 정한 목록이고 남녀가 모두 그려져 있는 운동 모습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처음에 활동하기 전에 표현했던 성 고정관념적인 의견이랑은 반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붙여졌을 때쯤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그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았고 해당 운동들은 모두 남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해주었죠. (하 교사, 2018. 6. 8)

2)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성평등교육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특정 활동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 및 이슈, 즉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교사의 언어,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 따라하는 유아들을 고려해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이는 방법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유아들에게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성 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이 발견될 때 교사가 개입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일상에서 각자마다 가진 특성이나 능력을 배제하며 무조건 ‘같음’을 중시하는 유아들이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교사의 생각에 대해 반성하며 ‘같음’ 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양성평등교육인 것을 알려주려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교사는 유아의 ‘거울’ : 시범 보이기를 통한 양성평등교육

교사들은 교사의 언행 및 행동과 더불어 교사가 하는 사고까지 은연중에 따라하고 닮아가는 유아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교사 자신을 유아의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한 언행과 행동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전 교사와 박 교사는 유아들에게 ‘거울’ 효과를 기대하며 외형적인 모습을 의식하고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유아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각각의 성에 어울리는 유형과 색깔의 복장과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형과 색깔의 복장을 교사가 일부러 착용하는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결과, 유아들에게서 성 고정관념 특징이 담긴 이야기가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경험은 다음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은 교사가 하는 행동, 말투를 다 따라하잖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은연중에 보고 다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양성평등교육이랑 연계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복장에 신경을 많이 써요. 아이들이 특히 색에 대해 예민하고 차별적인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두운색으로 입으려고 해요. 여자이기 때문에 밝은 색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파란색, 검정색을 입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 교사, 2018. 7. 18)

한 남자친구가 바지를 입고 온 여자친구한테 “너 왜 바지 입었어? 바지는 남자가 입는 건데.. 여자는 치마입어야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마침 바지를 입고 와서 그 남자아이에게 “성윤아, 선생님도 바지 입었는데? 선생님도 여자인데 바지 입었잖아요? 여자 남자 상관없이 다 입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 해줬었어요. 그 후로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바지를 자주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성윤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바지’는 ‘남자’만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평등하지 않은 발언을 하지 않더라고요.

(박 교사, 2018. 9. 1)

한편 교사들은 유아들의 일상 중 놀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 차별적인 언행이나 행동이 관찰될 때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놀이 시작 전부터 교사가 앞장서 특정 역할을 맡으면서 유아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끄는 모습을 보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아이들이 역할놀이영역에서 놀이할 때 저도 함께 놀이한 적이 있었는데 한 여자친구가 역할에 조금 늦게 들어갔나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역할이 정해졌는데 이 여자친구만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역할이 남자 역할밖에 없는 거였어요. 남자 역할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역할을 하면서 재미있게 놀이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가만히 지켜보던 그 여자아이도 뒤따라서 함께 놀이를 잘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뿌듯했죠. (웃음)

(안 교사, 2018. 8. 31)

아이들과 함께 동극을 해볼 때 저도 같이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남자역할이 남았을 때 다른 남자친구를 투입하지 않고 제가 한다고 했었는데, 처음엔 “선생님, 그건 남자친구가 해야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극 중에선 남자이지만 선생님이 좋아하는 성격을 가져서 선생님도 해보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게 했어요. 다 하고 나서 반응도 되게 좋았고 저 박수도 많이 받았어요. (웃음) 그 반응 정도면 아이들이 제대로 제 교육목적을 더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였겠죠? (조 교사, 2018. 7. 9)

이처럼 교사들은, 유아들의 일상 중 놀이 상황에서도 성 역할 고정관념을 보이는 유아에게 교사가 대신 이성 역할을 하는 가운데 놀이에서 남녀의 구분이 절대적인 적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또한 자신과 맞는 성별의 역할이 아닌 것에는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놀이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제한을 두지 말고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성 역할 고정관념 상황에서 개입하기

유치원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은, 일상 중 성 역할 고정관념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가 개입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다음의 사례와 같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녀 역할에 대해 유아들이 단정 짓고 있는 경우에 바로 이야기로 나누기를 하며 성 역할 고정관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회사에 나가는데 엄마는 항상 집에만 있어요. TV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적이 많아요. 엄마는 집에 있는 사람인가봐요.” 라고 불평등한 이야기를 할 때면 교사가 아빠도 일을 하지 않고 집에 계실 수 있고, 또 엄마도 아빠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때그때마다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들끼리 블록으로 총을 만들거나 칼을 만들어서 놀이할 때 여자친구들이 함께 놀고 싶어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남자친구들이 “안 돼! 이건 남자만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그때 교사가 개입해서 “여자친구들도 함께할 수 있는 놀이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이고 들릴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백 교사, 2018. 6. 2)

이러한 교육은 그냥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생활에서 유아들에게 성차별적이거나 성 고정관념이 섞인 말이나 행동이 나타날 때 그때 즉시 교사가 개입하여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박 교사, 2018. 8. 7)

또한 교사들은 요즘 미디어에서 소개되는 소식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유아들과 의견을 나눈다고 하였다. 유아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의 성차별적 캐릭터에 대해 유아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옳지 않은 표현인 것을 알려주면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들에게 인기 있는 미디어 채널의 주인공이 전형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이 담긴 행동과 언행을 하는 것을 보고 교사가 유아들에게 해당 채널을 시청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내용이라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지난번에 뉴스에서 대부분의 유아들이 선호하는 애니메이션에서 성 차별적 캐릭터 묘사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보았어요, 애니메이션에서 여자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여자는 날씬해야하고 남자는 용감해야하는 .. 그래서 제가 출근 전에 이러한 기사를 읽고 이아들을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의 외적인 부분과 성격에 대해서요! 근데 정말 여자는 거의 날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고 남자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힘이 센 남자어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에게 만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교사, 2018. 7. 20)

요즘 1인 방송이 활성화되는 시대잖아요. 성인들을 넘어서 유아들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수업 중 영상을 다뤄야하는게 있어서 유**를 사용했는데, 그 찰나에 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콘텐츠 자체가 어린이이기도 하고 성인 못지않게 방송하는 것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근데 한 여자 어린이가 하는 방송을 봤었는데, 성인보다 더 진한 화장을 하고 샤랄라 한 공주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나와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나중에 되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은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말도 들리더라고요. 이런 것이 아이들이 보는 영상순위 중 상위권 안에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상보는 것을 자제시키거나... (전 교사, 2018. 7. 18)

또한 놀이 상황에서 유아들이 주로 동성끼리 어울려 놀거나 활동을 하는 경우에 교사가 개입을 하여 남아들과 여아들이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교사의 의지대로 유아들의 놀이방식을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동성끼리만 놀이를 하게 될 경우 성 고정관념과 성

차별적인 개념이 빠르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아이들이 동성끼리만 노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싶으면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놀이 활동을 할 때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항상 둘이 같이 다닐 수 있게 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파트너를 한 번씩 더 바꿔주고요.. 그렇게 하면 둘 중 한 유아는 싫어하는 놀이를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긴 했었지만.. 막상 놀이하는 거보면 재미있게 잘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 고정관념은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높은 연령 반을 맡은 선생님들은 한 번씩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 교사, 2018. 9. 1)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어떠한 활동을 할 때, 활동량이 많은 것들은 확실히 남자친구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남자친구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여자친구도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여자친구들이 좋아하는 역할놀이도 남자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눠서 배치를 해줘요. 처음엔 제 의지대로 하는 것이니까 유아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나 놀 때는 최대한 친한 동성친구를 2명 이상씩 같이 보내요. 그렇게 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재미있게 놀이에 참여하더라고요. 친하지 않은 친구들끼리 있으면 놀이 자체를 어색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김 교사, 2018. 8. 15)

한편 정 교사는 유아들이 쌓기영역에서 놀이를 하거나 블록을 이용하여 장난감을 만들 때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어떤 것을 만들어 볼 것인지 지정해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항상 블록을 이용하여 칼과 총을 만들어 놀이를 하던 남아들에게 꽃의 형상과 인형, 도미노놀이 등의 만들기 활동을 제시하여 반복

적으로 한 가지 종류만 제작하여 놀이하지 않도록 하였고 더불어 남아와 여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격려했다고 한다.

남자친구들은 블록을 가지고 놀 때도, 미술영역의 재료를 다양하게 제시를 해줘도 항상 놀이할 때 만들어보는 건 거의 총과 칼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남자친구들에게 블록을 이용해서 예쁜 꽃밭을 만들어보라고 했었고 가베를 이용해서 인형을 만들어서 놀아보라고 했었고.. 또.. 도미노 놀이를 알려주면서 카프라 블록을 이용해서 남자친구들과 여자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지도했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우리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자유권을 뺏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게 다 같이 잘 놀았던 기억이 나요.

(정교사, 2018. 8. 25)

이처럼 교사들은 동성의 유아들끼리만 놀이를 하지 않고 남녀가 적절하게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상황을 해결하고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는 놀이영역을 인식하여 특정성을 가진 유아들이 특정한 영역에서 정해진 놀이만을 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을 탐색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제를 정해주거나 과제를 내어준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개입하여 유아들의 놀이상대를 정해주는 것을 통해 다양한 유형을 가진 또래친구와 놀이하여 성 고정관념적인 사고를 줄어뜨리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아들에게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어 놀이에 대한 자유권을 뺏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유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놀이영역에 개입하는 것이기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무조건 ‘같음’ 보다는 유아 개인의 특성 ‘인정’ 해주기

교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들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 양성평등 개념에 대해 바로 잡아주며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양성평등’이라고 남녀의 조건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같이’라고 생각하는 유아들에게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언제 한번 제가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의 도움을 받을 겸 선생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놀이에 집중하고 있는 한 남자 어린이를 불렀어요. 근데 그 유아가 저에게 “선생님! 제 바로 옆에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라고 말했는데 “제가 남자라서 힘이 더 세서 저 부른거죠? 그게 아니면 왜 여자친구는 안불렀어요? 선생님이 남자랑 여자는 차별없이 똑같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거예요. 아마 놀이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불려서 괜히 말 한마디를 더 붙인 것 같은데.. 양성평등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양성평등이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는 바로 해주긴 했는데, 사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박 교사, 2018. 9. 1)

저희 반에 한 여자친구가 나중에 커서 ‘씨름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요. 그 친구는 정말 제가 볼 때 그러한 체력도 충분할 것 같고 진심으로 좋아하는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이 친구가 씨름선수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맞아! 여자도 씨름선수 할 수 있잖아. 여자라고 못할 것 없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양성평등교육을 받았으니까 성별에 상관하지 않고 말한 것인줄 알았나봐요. 그래서 제가 “애들아~ 지선이는 양성평등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씨름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한 친구이고, 씨름을 사랑하는 친구야. 너희와 씨름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른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김 교사, 2018. 8. 15)

박 교사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아가 남녀의 신체적 조건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평등함에 대해 다시 되물었을 때 교사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 교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아는 본인의 재능에 따른 흥미를 느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머지 유아들이 ‘남녀 구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양성평등 개념을 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남자와 여자가 ‘같음’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각 개인의 재능과 특성에 초점을 두어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2.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들의 어려움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모든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실시하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수 자료 및 교구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었다. 교사들의 성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주 양육자와 성 차별적인 요소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사회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모두’가 아닌 ‘나’만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

교사들은 모든 교사들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교사만 실시하고 있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들은 유아들이 방과 후 과정이나 다른 학급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성평등교육의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양성평등교육을 받지 않은 학급 유아들의 고정관념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보통 만 3세 정도에 성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 시기쯤이 주변 또래에게서 많은 것들을 습득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때쯤 양성평등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더라도 돌아서면 아이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받지 않은 또래유아들의 노는 것을 보고 장난감을 선택할 때 여자는 인형, 분홍을 꼭 선택하려고 하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로봇, 파란색 등을 꼭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껴요. 만약 기관 전체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기관 밖에서 만나는 유아들이 양성평등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차피 제자리거든요. 주변 또래 친구들의 영향이 크니까 양성평등교육을 필수적으로 모든 유아들이 받지 않은 이상 쉽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최 교사, 2018. 7. 21)

저에게 양성평등교육을 받더라도 저희 유치원 자체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 반 아이가 정규시간이 끝나고 방과 후 교실로 가서 다른 또래집단을 만나면 또 거기서 성 고정관념적인 태도를 보고 따라 하고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유아기 때는 또래에게 받는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이 교사, 2018. 7. 20)

색깔에 대해서 예민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사실 분홍색을 좋아하지만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까 봐 분홍색을 좋아한다는 것을 숨기고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제가 그래서 수업시간에 색깔에 대해 양성평등하다는 것을 교육하고 난 후 유아가 용기 내어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나갔을 때 옆 반 또래친구가 보고 놀렸나 봐요. 그 반 담임교사는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아이에겐 충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 저희 반 아이가 시무룩해지더니 저에게 와서 다시 파란색을 찾더라고요. 그걸 듣고 저만 교육해서는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죠.

(백 교사, 2018. 7. 21)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과 후 학급에서나 교육기관 밖에서 접촉하는 다른 또래집단에게서 성역할 고정 관념이 담긴 행동이나 발언이 나타나면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유아도 다른 또래집단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양성평등교육을 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온다고 느끼고 있었다. 유아기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특히 또래집단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기 때문에 교사 ‘혼자’하는 양성평등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특정한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아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받아야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수 자료 및 교구의 부족

교사들은 유아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되는 교구를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

고 있었다. 교사가 직접 교구를 제작을 하게 되면 견고성 면에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교구 제작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디어 면에서도 한계를 느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기 초부터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신없는 학기 초에 양성평등수업 준비를 하다보면 이미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교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제가 직접 만들어야 해요. 그 바쁜 시기에요.. 그럼 견고성도 떨어지고 시간도 엄청 뺏기고요.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구가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이 교사, 2018. 8. 4)

제가 앞서 양성평등교육을 동화활동에 접목시켜서 했다고 하였는데, 동화 연계활동으로 주인공 인형 옷을 바꿔 입혀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때 그 주인공 인형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 사실 손재주가 좋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결과물이 엉성하니까 아이들한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그리고 교사가 직접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아이디어의 한계도 느껴지더라고요. (안 교사, 2018. 8. 31)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구·교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의 성별에 관해 인지하게 되고 남의 성별에 대해 알아가는 교구·교재는 많지만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교구·교재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 교사, 2018. 8. 26)

또한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 관련 교수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자료가 한정되어 있거나 너무 오래 전에 개발된 자료가 지금까지 수정, 보완되지 않고 사

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수 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조교사는 오래전부터 보아 왔던 양성평등 교수 자료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같은 내용과 패턴으로만 제시된다고 말하면서 교구를 사용하면서도 한계를 느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교사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 2002년에 개발한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이랑 교육부에서 2004년에 개발한 양성평등교육활동 지도 자료와 그 전에 나온 자료가 있긴 했던 것 같은데.. 더 찾아보면 논문이나 학술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다 방금 말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실행한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교사가 되기 전에 현장에 있을 때부터 지금 정교사가 되고 나서 경력을 쌓을 때까지 자료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시해주고 있는 자료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라서 교사의 응용력을 보태더라도 유아들에게 실행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조 교사, 2018. 7. 23)

교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요.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집은 교육부랑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출간했던 자료.. 그 외엔 대학원 졸업하신 분들의 논문 속 프로그램.. 그마저도 내용이 솔직히 다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을 교사가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조금 더 다양하게 제시해주는 실제 지도를 위한 교수 자료집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전 교사, 2018. 7. 18)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견고한 교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구가 개발되지 않고 오래전에 만들어진 교구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기존 교수 자료를 바탕으로 응용

을 하여 양성평등교육을 계획하는 데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사의 성 고정관념

교사는 유아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미 고착된 본인들의 성 고정관념 때문에 양성평등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중 백 교사는 본인의 성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남아가 동적인 행동을 보이면 이해를 하지만 여아가 동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제지를 했던 실수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 교사 역시 유아들의 의견과 성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전에 교사의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아에게는 파란 계열, 여아에게는 붉은 계열의 색상을 적용했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도 문제가 되죠. 저도 모르게 남자아이들은 행동이 과격하고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자친구들은 차분하고 얌전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들에게서 던지거나 소란스러운 행동이 나오면 ‘재는 남자애라서 저러는 거야’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불쑥해버리게 되더라고요. 만약 여자친구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으면 조금 의아해하거나 더욱 주의를 줬을 텐데 ‘남자아이들이니까’ 하면서 넘어갔던 적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완전 실수한 거죠.

(백 교사, 2018. 7. 21)

일단 제가 성 고정관념이 박혀있어서 실수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학기 초에 이름표를 만드는데 남자친구들 이름표는 저도 모르게 블루 계열로 만들고 여자친구들 이름표는 핑크 계열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만들고 나서 아차!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교사가 본의 아니게 양성을 갈라놓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 교사, 2018. 8. 4)

교사들은 이미 본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유아 양성 평등교육을 하면서도 유아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성 고정관념 및 성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었다.

늘 반성하지만 제 자신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무리 양성평등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차별적인 발언을 할 때가 있어요. 제 머릿속의 성 고정관념과 양성평등교육 사이는 정말.. 제 스스로의 가치관과 부딪칠 때 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아이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한다고는 하는데.. 밖에서는 저도 양성평등적인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이런 제가 아이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웃음) 어휴...

(이 교사, 2018. 7. 20)

유치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교사들이 힘을 써야 할 일이 많잖아요. 무거운 것을 옮긴다든지, 전구를 갈아 끼워야 한다든지..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제가 스스로 하지 않고 기사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여자들끼리만 있다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아무래도 여자들보다 힘이 더 세고 도구를 잘 다루시는 남자 기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이미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어 있다보니.. 참 모순적이네요. (웃음)

(전 교사, 2018. 7. 18)

이처럼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사들은 무의식중에 나타나는 본인들의 성 고정관념적인 의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어 교사 본인도 쉽게 지키고 있지 못하는 양성평등의식으로 인해 유아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인지 염려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미 고착화된 성 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유아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상황에 대해 모순을 느끼고 있으며, 본인의 생각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양성평등교육 관련 교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교사 연수 이전에 교사들이 자신의 성역할 고정 관념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주 양육자의 보수적인 성 역할 인식

주 양육자는 자녀가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최초 모델이고, 양육 및 교육 책임자이며, 자녀의 연령에 맞는 양육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박선정, 2015). 이처럼 주 양육자의 역할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양육의 주체자로서 책임감이 요구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유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 양육자에게서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을 목격하였고, 성 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경험의 사례는 다음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희 반에 조부모님께서 양육 해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부모님께서 아이를 데리러 오신 적이 있었는데, 조부모님께서 아이를 보자마자 “아잇! 기집애가 옷이 이게 뭐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조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 상황을 보고.. 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백 교사, 2018. 7. 21)

부모 상담할 때 “우리 애는 누나가 있어서 그런지 하루종일 그림만 그려요.. 태권도라도 시켜야 할까요? 너무 암전한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니까 교사인 저도 솔직히 헛갈리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께는 “아니예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쌓기 영역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성별에 따라 알맞은 놀이는 없답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계속 걱정을 하시니까 ‘내가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과연 맞는 말인가.. 너무 괜찮다고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곤 해요. (쓴웃음) 굉장히 어렵네요.. (최 교사, 2018. 9. 1)

또한, 다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가 유아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여도 유아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기주관이 강해지는 만 4~5세 유아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교사가 유아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유아의 부모에게 항의를 받기도 한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집에서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미 가정에서부터 듣고 자라 와서 교사가 말을 해도 “왜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바꿔준다는 것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납득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턱 막힐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6~7살만 되도 주관이 엄청 세요. 그 물음에 대답을 해도 계속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저도 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컴플레인 (complain)이 들어오는 거죠. 가정에서 아이의 의문을 풀어 주어야 하는 게 옳은 것인데 여자아이의 부모라면 “왜 우리 아이에게 핑크색을 주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요.. (박 교사, 2018. 9. 1)

한편, 또 다른 교사들은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하려고 해도 양성평등교육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주 양육자 태도로 인하여 양성평등교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들의 생각은 다음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모님들께서 양성평등에 대해 큰 생각이 없으시니까.. 가정통신문 보낼 때 아이들의 양성평등 개념 형성에 도움 될 수 있는 영상 링크를 함께 보내면서 가정에서 지도해달라고 전달하면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링크 찾아서 보시는 분들은 극소수고요.. 가정 연계 교육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아무리 원에서 교육한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이 교사, 2018. 8. 4)

한 번 저희 원에서 양성평등교육만을 위한 부모교육을 계획했었는데 학부모님들 반응이 시큰둥하시고.. 안 그래도 바쁘데 꼭 참여해야 하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있으셨거든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교육하면 뭐 해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은 다들 바쁘시다는 핑계로 피하기 바쁘데요..(백 교사, 2018. 7. 21)

이처럼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 양육자의 보수적인 성 고정관념과 성 차별적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사들은 유아들이 가정에서 주 양육자의 성 고정관념과 성 차별적인 의식을 되물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 양육자의 잘못된 성 평등의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주 양육자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양성평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사회 환경 속에 내재된 성 고정관념 및 성 차별에 노출된 사회 환경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치원 속의 환경과 유아 주변의 성인들만이 문제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아 주변의 문제점에서부터 나아가 유아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이 양성평등교육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다음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 교사와 최 교사는 유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에서의 성 차별적 요소를 지적하였다.

제가 ‘○○가족’ 동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남자 여자의 고정관념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상어가족 동요 영상도 함께 보면 더 심하다고 느껴요. 가사를 물론이고 남자 상어들은 파란 계열이고 여자 상어들은 붉은 계열이잖아요. 아이들은 이러한 영상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죠. (정 교사, 2018. 8. 26)

요즘 대중매체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TV, 컴퓨터 속의 인터넷뿐만 아니라 영상으로까지 남녀노소가 소통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광고 영상이나 사진 속에는 아직도 남녀의 역할이 정해져서 연출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보험 광고나 요리 조미료 광고 같은 거 보시면.. 물론 요즘 남성 요리사분들께서 방송에 많이 나오시긴 하지만 아직도 여성은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남성은 정장차림에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맞이하는 장면이 많죠. 이런 사소하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것부터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 교사, 2018. 9. 1)

또한 하 교사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지나다니는 거리나 공공시설에서도 성 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화장실을 안내하는 표시처럼 사회에서 정한 약속과 같은 표현에 있어서도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백화점이나 식당, 대중교통 시설, 대다수의 건물들, 공공장소, 심지어 교육기관까지.. 어디를 가든 남녀 화장실 표기 아시죠? 중간 막대 선을 기준으로 왼쪽부분에는 파란색 남자표시가 있고 오른쪽 부분에는 빨간색 치마를 입은 여자 표시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러한 표시는 모든 인간들이 거의 태어나자마자 접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약속이라고 해야 하나요? 문화적인 약속, 암묵적 약속부터가 양성평등 하지 못하고 성차별만 잔뜩 심어주고 있는걸요. (하 교사, 2018. 8. 4)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과 유아 주변의 성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자주 이용하고 접하는 미디어 매체와 거시적으로는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교사들은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아들에게 가까운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유아들이 겪게 되는 사회에서의 성 고정관념적인 요소가 효과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3.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유아교사들의 요구

교사들은 현재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 지적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자기반성과 자기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양성평등교육 개념의 확립을 위해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유아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아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1)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자기반성과 자기계발

(1) 교사의 자기반성 및 의식적인 노력

교사들은 유아에게 양성평등을 교육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교육을 실행하기 전에 교사 스스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평등 의식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탈피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생각은 다음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사인 제 자신이 먼저 깨어있고, 제가 가진 고정관념을 최대한 빨리 바꿔야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반성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아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교사이니깐요. 교사가 최대한 노력해야죠. (정 교사, 2018. 8. 26)

유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말투랑 생각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사람인데 더 더욱이요..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백 교사, 2018. 7. 21)

또한 교사들은 교사 스스로가 반성하는 동시에 사소한 발언과 행동 하나 하나에도 의식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김 교사는 유아의 빠른 습득력을 언급하며 유아들이 없는 공간에서도 동료 교사들끼리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가 먼저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하려면 일단 먼저 교사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단어 사용 하나에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사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다 습득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료 교사들끼리도 아이들이 없을 때도 이야기할 땐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교사들이 함께 일부러라도 의식하면서 조심하면 좋잖아요. (김 교사, 2018. 9. 2)

교사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무의식중에 실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가정에서의 환경들이 다 다르겠지만 기관에 와 있는 시간 동안에는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일부러라도 의식해서 색깔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성 고정관념이 드러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교사, 2018. 8. 29)

이처럼 교사들은 유아들에게 가정환경과 사회 환경 모두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유아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기관에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요인은 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 스스로가 성 고정관념과 성 차별적인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기반성과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2) 지속적인 자기개발

교사들은 자신의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인 스스로 주의하고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음으로써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소 양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교사는 사회에서 성역할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경

우가 있음을 예로 들면서, 사회에서 크게 주장되는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해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였다. 또한 세대 간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강연들이나 책들에 항상 관심을 갖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더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 해봐야겠어요.

(최 교사, 2018. 9. 1)

항상 이루어지는 영역, 주제가 아닌 다른 범위에서도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 교사나 유아교육기관의 끊임 없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교사, 2018. 9. 5)

양성평등을 위해서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다양해지기도 하는데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잘 판단 해보고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양성에 관련된 책을 찾아 읽어 본다거나 뉴스나 신문을 많이 읽어 보거나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요즘 시대에서 나타나는 성 문제에 대해 또래들이나 윗세대와 아랫세대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 생각 하고 있던 것은 과감히 버리고 수용해야 할 점은 수용하여서 교사부터가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사, 2018. 8. 4)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행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들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관련 도서를 찾아

서 공부를 하거나 관련 강연을 들어보고 여러 세대와 꾸준히 생각을 주고받는 것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한 자기계발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을 유아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교사로서 부족함이 없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양성평등교육 개념 확립을 위한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

(1)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바른길, 교사교육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었다.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해 조금 더 ‘바른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 아래 교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유치원의 현실적인 업무량을 고려하여 횟수가 많은 교육보다는 매학기에 1회 정도의 알차고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에서 연수를 따로 받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중략)... 딱딱한 연수나 교사교육은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틀에 박힌 강의 같은 거 말고 매 학기에 한 번씩 전문가께서 교사가 확립해야 할 올바른 양성평등의식과 개념에 대한 내용과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이랑 방법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연수 해주신다면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요. 교육자와 이수자가 소통할 수 있는 강의를 있으면 좋겠어요. (백 교사, 2018. 7. 21)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분들이 양성평등교육은 조금씩 실천하시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교사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먼저 깨우쳐준다면 양성평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교사교육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그래서 학기마다 한번씩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유아 양성평등방법이나 교사가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말투까지.. 이러한 세세한 교육내용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사, 2018. 8. 4)

교사가 유아들에게 교육을 하려면 교사들도 제대로 된 지식과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기 초에 무조건 한번씩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현직 교사들은 처리해야 할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교사교육의 내용은 전문가께서 모의수업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거나 유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회마다 새롭게 소개해 주신다거나, 놀이영역마다 적용시킬 수 있는 자세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교육해주시면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 교사, 2018. 8. 18)

또한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자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각각의 성에 따라 생기는 고충과 에피소드(episode) 등을 나누면서 여성 교사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한편 최 교사는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환경도 자연스럽게 여성적인 이미지로 형성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성평등교육에 적합한 유치원 환경을 꾸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교사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유치원 교사들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내다보면 남성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유치원 곳곳에 부각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다 여성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고 신경 쓴다고 해도 결국 제자리잡아요. 그래서 학기 초마다 중성적이거나 양성적인 특성이 드러나면서도 유치원에 어울리는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수를 받는다면 한 학기를 지낼 때마다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교실 구성이나 환경들을 정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교사, 2018. 9. 1)

교사들은 유아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현실적인 업무량을 가늠해보면 다회의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문제와 지루하고 비효율적인 교사교육의 형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통한 흥미롭고 효율적인 교사교육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교육과 양성적인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유치원 환경 꾸미기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2)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지름길, 부모교육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있어서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아가 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거의 부모와 함께 보내게 된다.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 평등의식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부모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또한 유아 양성평등 교

육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모교육은 정말 중요하고 필수조건인 것 같아요. 앞서 한 선생님께서 교사교육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이 바른길로 갈 수 있는 요소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부모교육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박 교사, 2018. 8. 7)

일단 부모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고 부모에게서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유치원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면 부모가 아무런 의미 없이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남자는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 쪽에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유아들에게 효과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제공하고 싶다면 부모에게 양성평등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교사, 2018. 8. 29)

또한 교사들은 직접 경험했던 양성평등의식 확립관련 부모교육의 실제 사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김 교사는 근무하는 유치원에서 부모초청 때마다 진행되는 부모교육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조 교사는 본인이 직접 계획하여 실행했던 부모참여수업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연계하여 진행했던 경험과 더불어 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교육방법도 일종의 부모교육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면서 부모참여수업을 이용한 부모교육이 개발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잖아요. 그래서 부모교육은 꼭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부모교육의 방법은.. 행사 때마다 저희 원장님께서 부모님께서 오실 때 부모교육처럼 행사 전에 부모교육처럼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씩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서 부모님들께 안내문자나 가정통신문이나갈 때마다 영상링크를 같이 보내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영상 시청을 하시면 확인 표시가 되는 것도 같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김 교사, 2018. 9. 2)

저는 부모참여수업 때 양성평등 관련한 수업을 계획해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종이봉지공주'라는 동화책으로 시작을 해서 그 동화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한 장면을 추려서 장면마다 퍼즐로 만들어서 부모와 함께 활동을 해본 후에 이야기를 회상하기도 하고 뒷이야기를 만들어보는 활동도 해보고요. 그 때 부모님들의 반응이 엄청 좋았었어요. 나중에는 수업 주제가 참신하다는 말씀과 함께 많은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면, 부모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참여수업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일종의 부모교육이 될 수 있잖아요.

(조 교사, 2018. 8. 18)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교육만큼이나 부모교육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본인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거나 실제로 경험했던 부모교육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언급하며 부모들의 참여율을 조금이라도 높이하고자 부모초청 시간에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한 가정 연계 교육, 부모참여수업을 통한 부모교육 등을 포함한 여러 방법의 부모교육을 제안하였다. 이는 유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주 양육자의 성 고정관념 탈피와 올바른

성 역할의 개념형성을 돕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3) 유아 양성평등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 흥미롭고 실용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사들은 유아들이 양성평등교육에 조금 더 흥미를 보이고 즐겁게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이 교사와 김 교사는 유아들이 평소에 시각적 매체나 활동성이 많은 영상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보이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러한 점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조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재·교구가 포함되어 있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은 시각적인 매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매체를 활용한 양성평등 교육물이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사, 2018. 8. 4)

동화책을 보면 엄마라는 역할은 요리하고 청소하고 나를 돌봐주시고 보살펴주는 것으로 표현되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반 아이 중에 엄마가 일을 하시고 아빠가 살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양성평등 교육용 책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동화책도 부모의 역할이 바뀌거나 기존에 한쪽 성만이 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있거나 실제로 그러한 직업군들도 성별이 바뀌어진 책이 나온다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이들도 정말 재밌어하고 관심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김 교사, 2018. 9. 2)

뭔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해요.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해서도 일부러 역할을 바꿔서 체험해볼 수 있게 하거나 극 활동을 할 때 왕자님, 공주님도 거꾸로 해보거나.. 여자친구들도 슈퍼맨이 되어보고 남자친구들도 '캐리캐리공주'가 되어보는 거죠. 그에 필요한 교구나 교재까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놀이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해요. 아니면 동화를 읽은 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제시해주거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조 교사, 2018. 8. 18)

또한 하 교사는 유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유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유아들에게 영향력이 큰 캐릭터와 스토리를 제작할 때 양성평등적인 요소를 현재보다 더 비중을 넓히길 바랐다.

한편 정 교사는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사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기를 바라며, 현재 재직하는 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주기도 하였다. 교사가 먼저 양성평등교육을 흥미롭게 접하게 되면 유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저희 원에서 교사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요. 책을 읽고 생각과 의견을 나누거든요. 한번 아이들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교사들의 생각을 들으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제가 고쳐야 할 부분들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

이 도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료교사들끼리 토의를 하는 것을 활용
하여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가
먼저 재미를 붙여야 유아들도 재미를 붙이죠. (웃음)

(정 교사, 2018. 8. 26)

이처럼 교사들은 유아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시각 매체와 연관시켜 프로그
램이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었고, 더불어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단계적인 프
로그램과 교재교구가 개발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또한 동료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지식을 쌓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교사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 유아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원외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교사들은 원외에서 주최하는 양성평등교육 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원외에서 진행되는 양성평등교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있
는 전 교사와 최 교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극과 동극 같은 공연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극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유아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내용이 담긴 극 공연을 관람하게 되면 유아들도 더 흥미를 갖게 되
고 교육의 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인형극이나 연극으로 구에서 주최하는 공연을 보러 간 적이 같아요. 아
이들이 딱딱한 그림 자료가 아니라 흥미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인
형극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교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잘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신선한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전 교사, 2018. 8. 29)

우리 아이들은 나가서 직접 동극으로 공연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동극처럼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창작동화극이 지속적으로 공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이들도 양성평등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게 자주 접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양성평등 개념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 교사, 2018. 9. 1)

또한 안 교사는 현장학습 때 방문하는 여러 박물관이나 전시회에 양성평등교육관이 별도로 마련되어서 유아들이 양성평등에 대해서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성교육 체험관과 같은 성에 관한 체험관은 주변에 종종 볼 수 있는데, 양성평등교육관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성에 대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관도 많이 생겨나면 아이들과 체험을 통해서 인식을 조금 더 쉽게 개선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유치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훨씬 효과도 많겠죠.

(안 교사, 2018. 9. 5)

이외에도, 성 편견을 가지지 않고 직업을 택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는 기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교사들도 있었다. 유아들이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성 고정관념 및 성 차별적 요인 중 성 편견에 치우쳐 있는 직업과 관련된 것이 많으므로 유아들이 다양한 직업인들을 직접 만나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저는 아이들이 잘못된 성 역할에 대한 개념을 갖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해 보면 뭐 다들 예측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경찰과 소방관은 남자의 직업이고, 간호사와 유치원 교사는 여자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을 시키고 아이들이 직접 근무지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궁금한 것도 질문해보고 하면서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백 교사, 2018. 9. 5)

직업탐구활동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식이 심어질 수 있겠어요. 맨날 우리 성인들이 항상 직업은 성별로 따로 나눠서 갖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 편견 없이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직접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서 체험도 해보고.. 그렇게 점점 아이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아이들부터라도 직업 선택에 있어서 기회를 넓혀주고 싶어요.

(하 교사, 2018. 9. 5)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이 유치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 내용을 다룬 극 무대나 성 편견 없는 직업 탐구 및 체험, 전시회와 체험관과 같은 외부의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더 많은 외부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들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이며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실제

교사들은 계획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아양성평등교육과 일상생활 속에서 교사의 사전 계획 없이 유아들의 성 고정관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개입하는 방식으로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양성평등교육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가 계획한 활동을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사들은 정해진 교육과정 속의 틈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양성평등교육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이는 주요 학교 활동 영역인 교수 학습활동, 진로지도, 생활지도 영역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박혜진(201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과정 속의 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유형 중 양성평등교육의 목적과 가장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빠른 시간 내에 교

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통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들이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다양하게 연계시켜 실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볼 때, 성 역할 개념이 가장 활발히 발달되며 큰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에 양성평등교육이 의무적인 교육과정에 속하지 못하여 각 유아마다 배움의 기회가 제각각 다르거나 교육의 질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해진 교육과정 시간을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연계 활동보다는 진행되는 교육과정 내용과 연계가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유형으로만 양성평등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한계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교육이 필수적인 교육과정에 포함된다면 더욱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 다양한 유형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유아들이 쉽게 접하는 동요나 동화 속에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경우에 유아들과 함께 수정해보는 활동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고 있었다. 유아가 즐겨듣고 부르는 동요 속 가사에 성 편견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장문정과 정지현(2017)의 연구결과에서도 보고되었다. 이에 교사들은 성 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가사가 담긴 동요들을 유아들과 함께 개사해보고 불러보는 활동을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유아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유아들에게서도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양성평등교육의 목적으로 실행된 프로그램 중 성 역할 고정관념 요소가 포함된 동요 가사를 개사하는 활동을 통해서 활동으로 유아의 성 고정관념이 완화되었다는 김용란(200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성 역할 고정관념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동화에 대해 유아들에게 토론의 기회를 마

련해주고, 동화내용을 수정하는 활동을 통해서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동요 및 동화 속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난 가사나 주인공이 유아에게 쉽게 노출됨으로써, 동요 및 동화가 성 역할 고정관념 개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유아들에게 친숙하고 대중화되어 있는 동요 및 동화 내에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요소들을 의식하고 바로 잡아주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수자료를 사용하여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제작된 동화책의 내용을 탐색한 후 등장인물이 되어 성 차별적인 사례나 남녀가 평등한 사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연계활동을 하는 가운데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였고 이러한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동화를 사용하여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함께 제공한 집단의 유아들이 집단과 양성평등 그림 동화만을 듣거나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집단에 속한 유아들에 비하여 성 역할 고정관념, 성 역할 식별의 수치, 성 역할 선호도 등이 감소되었다는 문종란(2003)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동화의 내용을 제시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사후 활동으로 동극 활동을 하거나 등장인물 인형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나뉘보는 활동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이은경, 2008; 김정순, 2003)에서도 동화활동을 활용한 교육이 유아의 성 역할 고정관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화의 연계활동을 통해 교육할 경우 유아의 성 역할 고정관념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된 바 있다. 유아들이 동화를 통해 양성평등에 관한 다양한 상황을 대리 경험할 수 있고, 여러 유형의 연계활동을 통해 동화 주인공과 동일시되는 경

힘을 통해 유아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양성평등적인 개념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을 목적으로 계획된 다양한 교구교재, 게임 자료를 사용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였다. 유아들의 반 편견 사고게임이 유아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감소시킨다는 강소원(1999)의 연구결과를 볼 때 유아가 남녀 역할의 평등함이 내재된 활동을 경험해보는 것을 통해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성평등교육

첫째, 교사들은 유아들이 교사의 사소한 언행과 행동을 모두 따른다는 것을 고려하여 교사 자신을 유아들의 ‘거울’이라고 비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교사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지 않은 언행 및 모습을 따라할 수 있도록 유아들에게 유도하며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에게서 나타나는 성 고정관념의 발화 및 표현을 기준으로 교사가 직접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태도 및 표현의 시범을 보이거나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여 유아들에게 우회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있었다. 류덕순(2007)의 제안과 같이 교사들이 유아들을 성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모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도 교사가 양성평등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자 하는 노력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유아들을 성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거나 양성평등에 대한 모델 역할을 수행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한 류덕순(2007)의 연구결과와 유

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교육방법에 대해서 일시적인 시범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방법을 통해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가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언행 및 행동을 유아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중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교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들에게서 성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경우에 개입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 차별적인 상황 및 표현이 일어났을 때 상황에 따라 교사가 개입되어 임의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한다고 보고한 정미라(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성 편향적 놀이 및 행동이 나타날 때 유아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교사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보고한 손영빈 외(200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사들은 이러한 교육방법이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유아들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개입방법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은주(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들의 놀이에 교사가 색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활동한 직후 유아들에게 색에 관련한 질의를 했을 때 유아들의 대답 중 색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실제 활동이 끝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남아에게 분홍색 색종이를 제시했을 때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유아들의 놀이에 교사의 의지가 개입되는 형식의 양성평등교육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 교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놀이에 참여한 모든 유아들이 교사의 의도

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하고 협의한 후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교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양성평등 개념을 바로 잡아주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이 남녀의 신체적 차이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같은’ 대우를 해주거나 반기를 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즉, 유아들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여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남녀의 구분을 전혀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교사들은 유아들에게 양성평등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는 손영빈 외(2009)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통하여 모두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개별적 차이와 특별한 점을 동시에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할 때 ‘양성평등’의 본질적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느낄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 스스로가 양성평등의 개념에 개인의 특성과 주어진 환경 등을 고려하고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유아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들의 어려움

교사들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모든 교사가 공통적으로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교사만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수자료 및 교구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었다. 또한 교사들의 고착화된 성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주 양육자와 성 차별적인 요소에 무

분별하게 노출된 사회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교사들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교사들만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따른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학급에서 아무리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고 있지 않은 다른 학급 유아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유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유아들은 함께 어울리는 또래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닮아가게 되어 함께 놀이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성 고정관념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손영빈 외, 2009) ‘일부’의 교사만이 아닌 ‘모든’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여 유아의 성 고정관념이 고착되지 않고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유아기 양성평등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교육’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주요한 교육의 하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교사들의 전문성을 위한 관련 교사연수 방안과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할 때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한 교수 매체와 교구를 최대한 이용하여 교육하고 있지만, 자료들이 너무 오래 전에 개발이 되어 양성평등교육 목적을 위한 내용면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발전한 교수 자료와 견고한 특성을 지닌 교구는 매우 부족하여 양성평등교육 실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생각은 유아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제공하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응용하여 제공하기 위한 교수 매체와 자료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는 류덕순(2007)과 손영빈 외(200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바쁘게 운영되는 유아교육현장의 특성으로 인해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구제작과 교육계

획을 여유롭게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체계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교수 매체 및 교구가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아들이 적절한 양성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구를 탐구하고 제작해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들은 교사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즉, 교사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유아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성 고정관념 및 성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내재된 사고와 태도로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교사들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태도가 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이재옥, 1999) 교사들의 스스로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돌아보고 적절한 모델링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들은 주 양육자들의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과 성 편향적인 사고로 인해 유아 양성평등교육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유아의 행동과 사고에 개입하게 될 때 교사들의 교육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유아들의 성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태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주 양육자들의 의견으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해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실행하는 경우에 주 양육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한계를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양성평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들의 인식과 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과 연계한 양성평등 동화책 활동이 유아의 성 역할 고정관념과 성 역할 선호도가 완화되어지는 효과를 분석한 박지영

(2010)의 연구결과, 가정과 연계한 유아들의 성 역할 고정관념과 성 역할 선호도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양육자들은 유아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교사들은 성 고정관념 및 성차별에 노출된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사들은 유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 속 성 역할 차별의 장면을 지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어린이 TV광고를 활용한 미술비평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사례연구를 한 임지혜, 엄소명, 이정옥(2015)의 연구에서도 남아들의 소비를 유도하는 어린이 광고에서 ‘남성성’을 강하게 표현한 도구를 출연시켜 유아들의 잘못된 성 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동요 노랫말에 표현된 성 편견 요소에 대해 알아본 선행연구에서도 유아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속 여성의 이미지는 주로 수동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남성은 의존성을 부각하여 성 편견 요소들이 담긴 동요를 유아들이 접함으로써 성 편견이 생길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다(장문정, 전지현, 2017). 이는 교사들이 유아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차별 및 성 편견적 요소들을 담은 동요들이 대중화되어 있어 유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할 때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사회 속에서 암묵적으로 약속된 표지판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미시적으로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의 긍정적 효과와 거시적으로는 유아들의 올바른 양성평등의식 및 개념형성을 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유아 주변의 환경을 포함하여 사회 속에서도 양성평등적인 요소들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유아교사들의 요구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경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자기반성 및 계발, 양성평등교육 개념의 확립을 위한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 유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에게 효과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교사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교사의 잘못된 양성평등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사 스스로가 자기반성과 자기계발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이를 위해 유아들이 없는 곳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 자신이 스스로의 교수 방법이나 가치관을 돌아보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할 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교사의 반성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안은주(2006)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교수 행동에서 문제를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반성적 사고를 통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한 강연이나 책을 접하고 양성평등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태도를 통한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교사 스스로가 성 역할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점검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감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사들은 자신의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때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며, 교육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교사들이 올바른 양성평등의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고, 유아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흥미롭고 실용적인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양성평등의 특성이 드러나는 유치원 환경 구성을 위한 도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연구 경험 및 요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사의 89%가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통한 연수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음을 보고한 연구(류덕순, 2007)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주 양육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일반적 부모교육을 실행하기에 앞서 영상을 통해 유아 양성평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부모들의 양성평등에 입각한 자녀양육태도가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이연숙(2008)의 연구결과는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부모교육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부모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사는 부모 참여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요구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 양육자들에게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교사들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할 때 교육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교수 매체나 교육프로그램의 미비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하여 유아들의 관심사와 흥미를 고려한 유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성 역할 태도와 성 고정관념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강나루, 2006; 고유진, 2003; 정은주, 2008; 최은옥, 2007)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양성평등 요소가 담긴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이 외에도 동료 교사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요구하였다. 따라서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와 양성평등교육을 받는 유아 모두를 위하여 흥미롭고 실용적인 유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 양성평등교육이 유아교육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외부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양성평등교육을 한다면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외부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었다.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사와 유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형극이나 연극과 같은 공연과 양성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만나 체험할 수 있는 직업 탐구의 기회,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의 확충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유아들은 현장학습과 같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므로(서은혜, 2013) 유아들의 외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은 효과적인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유아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여관찰을 통해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면담 결과를 통해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이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유아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구·교재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교사들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용 가능한 유아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및 지도서 개발을 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나루(2006).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강소원(1999). 반편견 사고게임과 그림동화 활동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미경(2007). 지체부자유학교 직업·진로지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지체부자유교육 석사학위논문.
- 고유진(2003). 양성평등의식 교육 활동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현, 황정련(2013). 교사와 어머니가 인식한 유아의 성역할 사회화 형성변인 분석. 유아교육연구, 33(2), 213-236.
- 곽삼근, 조혜선, 윤희경(2005). 생애주기별 성역할 발달 및 갈등. 한국여성학, 21(2), 147-179.
- 곽윤숙(1986). 학습장면에서의 위계적 성역할 관계 : 서울시내 S동 새마을 유아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1999).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4).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지도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구은옥(2009).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과 유치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2002). 남녀공학과 비공학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름(2011). 유치원 교육과정 동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 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엘림(1996).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양완(2006). 초등학교 교사의 양성평등의식과 실천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완신(2003).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성 역할 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란(2004). 보육시설의 양성평등교육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아(2017). 양성평등 교육의 관점에서 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삽화분석.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섭(2017). 그림책을 활용한 공감 기반 인성교육 활동이 유아의 정서조절 및 배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순(2003). 양성 평등 프로그램 활동의 유아 적용 효과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2019). 우선순위 기법을 활용한 양성평등 교육기관의 교육요구 우선순위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 김홍숙(199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성역할 교수학습과정. 한국여성개발원.
- 김효정(2015). 교사가 인식하는 유아의 성별 특성의 차이.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연, 김명희(2012). TV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성차 분석.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지, 17(5), 611-634.
- 김희옥(2002). 고등학교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역할 정체성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미영(2005). 교사 언어 속에 나타나는 성차별 연구.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류덕순(2007). 유치원 교사의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의식과 실태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 민남정(2001). 유아의 성역할 정체감과 남녀평등의식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2017). 성평등 인센티브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효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94, 37-78.
- 박은혜, 김희진, 곽삼근, 김정원(2004). 생애주기별 남녀평등의식 교육의 기본 방향 연구 및 유아기 평등의식 프로그램 개발. 여성부 연구보고서 2004-08.
- 박지영(2010). 가정과 연계한 양성평등 동화책 활동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별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인옥, 박찬옥, 이기현, 김은희(2001). 유아교육과정. 서울: 정민사.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1999). 여성과 남성을 위한 여성학. 중앙적성 출판사
- 변길희(1999). 부모의 성역할 지각과 유아기 자녀의 성 특성 고정 관념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혜(2013). 유아교육기관 현장학습의 현황 및 교사 인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혜성, 신혜경(2007). 양성 평등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실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3(2), 43-64
- 성구진(1995). 반 편견 그림동화가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수경(2009). 5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선호성과 또래 유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정아(1995). 창작그림책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영빈, 권오미, 이명희(2009). 유아교사들의 양성평등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 16(1), 243-273
- 송석재(2003). 반두라의 행위 중심의 도덕교육론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미혜(2013). 한국인의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차별의식 및 군복무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3), 365-385.
- 안은주(2006). 교사발화와 반성적 사고에 나타난 유아교사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정(2006). 유아기 어머니와 교사의 성역할태도와 양성평등교육 태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민정(1995). 성역할 평등개념에 기초한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지연(2017). 공감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배려적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2000). 취학 전 아동의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20-10.
- 윤미순(2009). 부모와 보육교사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영·유아기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성록(2005). 양성평등의 가속화. <http://www.bokjitime.com>에서 검색
- 이순형, 김진경, 서주현, 김정민, 이정현 외(2016). 유아사회교육. 서울: 학지사
- 이영란(2011). 양성평등 유아교사 연수프로그램 개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 이언숙(2008).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2008). 양성평등 동화활동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사회 및 평생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재옥(1999). 유아교사의 성역할 인식과 양성평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학, 16(2), 217-237
- 이주경, 오연주, 김혜옥(2008). 성 평등 그림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활동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 연구, 9(1), 137-165
- 이진분(1987). 교사교육과 양성평등. 한국여성학 3, 98-123
- 임정수, 이완정(2015). 유아가 인식하는 남성보육교사의 역할과 유아의 성역할 개념. 한국보육지원학회, 11(1), 43-61
- 임지혜, 엄소명, 이정옥(2015). 어린이 TV광고를 활용한 미술비평 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9(6), 267-289
- 장문정, 정지현(2017). 동요 노랫말에 표현된 성 편견 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교육학회지, 26(3), 271-292.
- 장성자(2003). 양성평등 알고 보면 쉬워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장인경(2002).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과학교육의 방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숙, 양애경, 김홍숙(199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성역할 교수·학습과정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1.
- 전경숙(2010). 양성평등 교육의 관점에서 본 유치원 지도서 삽화분석.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라(2011). 유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아동교육학회, 20(4), 247-263.
- 정연숙(1991). 어머니의 성역할 성격특성 및 가족환경 변인과 아동의 성특성

- 편견과의 관계연구. 동덕여자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2007).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감소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윤(2001).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의 양성평등의식과 양성평등교육실천 차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원(1999).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 교육과학연구, 29(1), 3-17.
- 조이영, 김희정(2016). 라디오 광고에 나타난 성역할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0(5), 264-292.
- 진보라(2013). 유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리더십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경화(2001). 개작된 전래동화를 활용한 반편견 교육활동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기영(198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여성연구, 16, 112-140.
- 최옥규(2003). 수업반성이 교사의 발문 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은옥(2007).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가족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표준어국어대사전(2015). 양성평등. <https://www.korean.go.kr>에서 검색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08).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 <http://www.kigepe.or.kr>에서 검색.
- 한국여성연구소(1999). 여성관련 연구동향. 여성과 사회, 10, 301-32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2). 남녀평등의식 교육. 서울: 여성부.

- 현영자(2000).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성역할 정체감 및 의식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연애(2009). 남자 유아교육실습생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 *영유아교육학*, 12(0), 19-30
- 홍영서(2001). 유치원 여교사의 성역할 개념 성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정아(2003). 보육시설의 교사들의 성역할 의식에 따른 양성평등 의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ical*, 31(4), 634-643.
- Bem, S. L. (1981). *Gender Schema Theory: A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4), 354-364.
- Block, J. H. (1973).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6), 512-526
- Bogdan, R. C., & Biklen, S. K. (199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2nd ed.). Boston, MA: Allyn & Bacon.
- Derman-Sparks, L., & A. B. C. Task Force (1989). *Anti-Bias Curriculum :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 NAEYC.
- Edelbrock, C., & Sugawara, A. I. (1978). Acquisition of sex-stereotyped preferences in preschool-ag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614-623.
- Ellis, S., Rogoff, B., & Cromer, C. C. (1981). Age segregation in

-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399.
- Houston, B. (1985), *Gender freedom and the subtleties of sexist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35(4), 359-369.
- Kobasigawa, A. (1968). Inhibitory and disinhibitory effects of models on
sex-inappropriate behavior in children. *Psychologia*, 11, 86-96
- Langenbach, M. (1997). Day care curriculum consideration. Columbus, OH :
Charles Merrill.
- Maccoby, E. E. (1988). Gender as a social categ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4, 755-765.
- Spradley, J. P. (2006). 참여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 (신재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80년에 출판)

ABSTRACT

The experiences and demands about the early-childhood gender equality education of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Min-Ji, Jo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ays in which early childhood teachers are implementing early-childhood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to analyze what kind of difficulties the teachers have now and their current demands for more effective gender equality education system. This study aims to lead the teachers to understand better about the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for teachers to carry out gender equality education more effectivel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his study selected several subjects as follows.

1. How is the current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going on?

2. What kind of difficulties do the teacher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3. What do the teachers demand for more effective gender equality education?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10 infant teachers from June 2 2018 to September 5 2018, with intent to understand their experiences and demands about the gender equality education.

There was 24 times of interview with 2-3 times per each teacher. We recorded and transcribed all the conversations after asking for their agreement. Also we classified and categorized the contents by several themes and yielded final results by reading the interview transcriptions and field notes repeatedly.

We classified the final results of this study by each 3 subject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examples of early childhood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teachers who deliver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plan, tend to implement the gender equality education related to curriculum by using some gaps of the curriculum. They used very concrete method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For example, it was an activity leading children to find out and try revising some materials which connote some stereotypes of gender

roles in fairy tales or children's songs which are accessible for children. Also they used some other references about gender equality education.

Teachers who are currently realiz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likened themselves as a 'mirror' of the children, considering that the children usually copy the teachers' behaviors and even their small words and speech. So the teachers seem to do gender equality education by showing their gender neutral behaviors first so that the children can follow the teachers and finally grow up not to show some stereotypes of gender roles and have gender equality perspectives. Also the teachers said they intervene in the situations where children can experience some gender inequality routinely, by prohibiting those children from doing some unmoral behaviors that show stereotypes, or giving some planned directions of play -which would not lead gender inequality situations- to the children. However, this method seems to infringe the children's liberty of choice. Meanwhile, the teachers tried hard to correct their children's concept of gender, emphasizing not the unquestioned 'sameness' of gender, but the importance of 'admitting each gender's rol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Next, we found some difficulties the teachers are in trouble with, as follows. One of the problems was that only a small number of teachers are actually do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Also the content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were weak because there are not enough instructional materials or some useful tools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currently existing materials are too obsolete. In addition to, some teachers said they also have some stereotypes about gender, which cause serious difficultie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The teachers said that they also have

difficulties with the children's parents, who negatively respond about the teachers' education method and have too conservative concept of gender roles, never recognizing the children's those stereotypes can be dangerous for their children. Also they said nowadays' mass media or social environment, is implicitly justifying some gender inequality and makes those stereotypes seem just natural like a social engagement, and due to these features of media, they are getting trouble with the direction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Lastly, There are some demands the teachers expressed for better gender equality education, as follows. First, they suggested the teachers who do a gender equality education should correct their wrong conceptions of gender and should do self-reflection seriously and be careful about gender equality not only in the kindergarten, but also in their daily life. Also they said those teachers have to care more about self-improvement by gathering information actively and studying for better gender equality education.

The teachers also demanded the establishment of training teachers and parents. The teachers admitted the necessity of training themselves because they often get trouble with do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due to their inherent gender stereotype and deficient knowledge about the methods of education. The teach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raining teachers, saying that training teachers is the best shortcut for better gender equality education. Also they depicted educating parents as an another shortcut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demanded development of more effective and practical programs about educating parents. In last place, the teachers demanded the development and propagation of the programs related to the

gender equality education. They seemed to want more practical and interesting programs that can support early-childhood gender equality education more effectively in the education field. Also they hoped invigoration of the programs - outside the kindergarten. They suggested more various type of programs outside the kindergarten, like a play which covered the gender equality, job research activity that does not include some stereotypes or opening exhibitions about gender equality. The teachers maintained these kinds of programs can improve more effectivenes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than when they realized gender equality education only inside the kindergarten. So they expected the number of these kinds of outdoor programs to increase more than now.

This study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hat we looked into actual early-childhood education field seriously and suggested more effective remedies for better gender equality education by listening carefully to the current teachers' demands based on lots of experiences of the early-childhood gender equality education.